

상상의 帝國, 天朝의 邊境*

— 元明 시기 雲南 변경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최수경**

<목 차>

1. 서론
2. 外國에서 邊境으로: 雲南 변경의 확장과 '百夷'의 발명
3. 元 제국의 새로운 '중국': 《大理行記》의 공간
4. '皇明帝國'의 一隅: '百夷'와 '西南夷'의 서사
5. 결론

1. 서론

大理國(937~1253)은 1253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현재의 雲南 전역, 그리고 미얀마·태국·라오스 북부를 차지했던 대리국의 멸망과 함께 운남 지역은 중국의 판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서남 변경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작점이기도 했다. 당시 운남의 서남쪽으로는 부락 연맹 혹은 小國 형태의 정치체들이 산재하고 있었고 더 남쪽에는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인 파간(Pagan蒲甘, 849~1287)왕국이 있었다.¹⁾ 몽골은 중국과는 완전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27).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zxlight@hanmail.net)

1) 미얀마의 지명, 인명은 자료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파간국 역시 '바간(Bagan)' 혹은 '버간'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고에서는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산인, 2018)에서의 표기를 기본적으로 따랐으나 국명은 '버마' 대신 현재 정식 국명인 '미얀마'로 표기하였다.

다른 종족적, 문화적, 정치적 공동체들을 처음으로 중국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元과 明 제국 시기 운남의 서남 변경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세력 간의 일련의 충돌과 갈등은 결국 중국의 서남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투쟁이자 제국(元, 명)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은 상당히 다의적인 개념이다. 만약 중국의 범위를 전근대 시기의 ‘중국’으로 축소한다고 해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秦-漢-唐-宋-元-明-清’으로 짜인 계보 속의 중국 왕조가 포괄하는 지리적 강역과 민족 범주가 너무 다양하므로 이를 관통할만한 결정적이고 단일한 정체성을 포착하기 힘들어 보인다. 葛兆光은 역대 중국의 강역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으나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恒常性을 지닌 ‘중국’은 왕조 교체와 관계없이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한 ‘중국’에는 군현제로 대표되는 행정체계, 동일한 법률, 동일한 문자와 언어, 공통의 신앙과 의례, 중앙 권력과 연계된 지역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²⁾ 그런데 葛兆光 역시 ‘漢族 중국’이 중화제국의 ‘정치-문화 핵심구역’이었다고 표현했듯이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제도적, 사상적 중국은 실질적으로 ‘漢族의 나라’에 다름 아니었다. 元明 제국이 무력으로 점령했거나 자발적으로 內屬했던 ‘非漢族’ 구역들이 제국의 판도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이런 곳들이 모두 동일성을 지닌 ‘제도적, 사상적 중국’의 일부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민족 왕조였던 元제국이 이러한 서남 통치와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족 중국’의 사상적 자원과 제도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헌 속에서의 서남 변경에 대한 재현 방식과 재현 주체의 시선으로만 보면 실제로는 매우 상반된 ‘중국’ 관념을 지니고 있던 원과 명 제국에게서 상당한 유사성과 지속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고는 元明 제국 시기 중국이 새로 개척한 운남 서남부 변경과 주변 외국들(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이 텍스트 속에 재현된

2) 葛兆光 著, 《歷代中國的內與外》, 肆<核心與邊緣: 凝聚·雜糅·延續>(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7) 참조.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³⁾ 운남 서남부 변경은 당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마지막 지점이었다. 그리고 타이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두 종류의 정치세력과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拮抗하는 이 지역은 필연적으로 늘 '변경'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대와 명대에 오면 이 '지속적인 변경'의 세력 균형추가 약간 기울게 된다.⁴⁾ 현재 운남에 해당하는 지역 상당 부분에는 府州縣이 설치되었고 운남을 둘러싸고 있는 서남쪽 접경 지역에는 '土司'가 설치되어 중국의 간접 통치 대상이 된다. 이 지역은 언어, 문화, 제도 등에서 중국과 영향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문화의 접촉 지대이자 교차 지역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한때 중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국이 상상하고 구상하는 중국의 형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곳을 異域에서 변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글쓰기 속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현했을까?

어쩌면 매우 당연하겠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중국 밖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이 중국에 (혹은 미얀마나 라오스에) 어

3) 邊境을 의미하는 영어 frontier, border, boundary는 그 지시하는 의미와 범주가 문화권마다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선민은 frontier는 변경, boundary는 경계, border는 국경, borderland는 국경지대로 번역하였다. 그에 의하면 변경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 혹은 사회집단이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고, 국경은 "인접한 두 정치세력이 서로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한 선"을 의미한다. 국경지대는 변경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邊疆'은 변경과 국경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 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윤영인 외 지음,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117-118쪽) 유럽권에서는 반대로 frontier가 '국가 간 경계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혜정, <변경에서 중심 읽기>,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제국과 변경》, 혜안, 2017) 국경은 근대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본 고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본 고에서의 '변경'은 전근대 시기 정치체들 사이에서 존재했고 권력 중심이 수시로 이동하며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충돌, 융합, 다원적 소속성, 초국적 성격 등을 표현하는 공간들을 주로 지칭한다.

4) '지속적인 변경(persistent frontier)'이란 Giersch가 청대 운남 勐卯(당시 麓川, 지금의 瑞麗 일대)와 騰冲에서 思茅, 景洪에 이르는 초승달 구역을 형용한 표현이다. 그는 이 지역이 "사회적 경계와 문화적 실행이 유입되는 만남의 장소이거나 '중간 지대'라 하였다. C. Patterson Giersch, *Asian Borderlands: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7-9쪽 참고.

던 역사적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주로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본 고의 목적은 중국과 百夷 혹은 西南夷 사이의 교류나 갈등, 혹은 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하는 것에 있지 않다. 미얀마는 한때 형식적이거나 중국의 일부로 천명되기도 했고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또 한때는 운남을 넘보며 중국의 적수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 있는 小國들은 때로는 미얀마, 때로는 중국에 歸附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며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元明代에는 이 공간과 이 사람들을 가리켜 ‘百夷’나 ‘西南夷’라 칭했는데 종종 미얀마나 라오스 등 사실상의 외국도 이 안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당시 이 지역을 일괄적으로 ‘(雲南)土司’라 호칭한다. 서구 학계에서는 이 공간을 ‘Tai frontier’라 칭한다. 사실 이는 전통적 호칭이었던 ‘百夷’의 범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백이’란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범주가 조금씩 변화하기는 해도 대체로 타이족을 지칭한다는 설이 지배적이다.⁵⁾ 물론 중국과 미얀마 변경 지역의 小國 중에는 타이족 외의 종족이나 집단도 존재했으나 타이족과 그들의 정치체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⁶⁾ 하지만 이 ‘백이’라는 표현은 주로 명대까지만 사용되었고 ‘백이’가 지칭하는 공간이나 지역, 종족의 범주가 호명 주체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 때로는 ‘西南夷’라는 용어가 ‘백이’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서남이는 한대부터 사용된 용어지만 당시의 서남이와 명대 문헌의 서남이가 지시하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본 고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운남 변경 혹은 타이족 小國이라는 용어를,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맥락에서 서술

5) 江應樑은 明初 등장한 《百夷傳》에서의 백이는 타이족(傣族)을 지칭하는 듯 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 ‘백이’가 당송 시기 문헌에 종종 보이는 ‘白衣’가 변화된 것이라 하였다. 실제 元明 시기의 문헌을 보면 운남 일부, 미얀마 북부와 태국 북부, 라오스 일부에 거주하던 타이족 부락을 백이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 《百夷傳校注》〈序言〉(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80) 참고.

6) 현재 미얀마 북부의 카친(Kachin)주에 살고 있는 카친족(중국의 景頗族)은 운남 변경 시대 토사 구역에 주로 분포해 있었지만 원명대 문헌에서는 이들을 모두 ‘백이’로 분류하였다.

할 때는 '토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곳의 사람들을 형용할 때는 百夷나 西南夷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전통 시기 중국이 주변부를 지칭할 때 그 공간과 그곳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고에서의 '백이'는 때로는 특정 공간을, 때로는 그곳의 사람을 의미한다. 물론 과거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어휘들 속에 주변부 공간과 인간에 대한 비하와 멸시가 내포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휘의 선택과 사용 역시 결국 중국이 상상하는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하고자 '백이'라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元明대에 걸쳐 진행된 중국과 타이족 小國들과 미얀마 사이의 분쟁과 갈등의 역사와 그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원명대 서남 변경과 그 일대 정치체들을 묘사, 재현한 글쓰기들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사실 현재 남아 있는 글쓰기 중에서 근대 이전 타이족 지역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을 직접 경험하고 쓴 것은 극히 드물다. 물론 생업을 위해 미얀마나 라오스에 왕래했거나 이주, 정착한 중국인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를 글로 남길 만한 관리나 지식인이 그곳을 방문한 사례가 드물었을 뿐이다. 현재 남아 있는 극소수의 자료는 대부분 조정에서 파견된 사신이나 운남에서 근무한 관리들이 쓴 것이다. 물론 그곳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글쓰기만이 본 연구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해도 이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묘사 범위나 지식은 여전히 제한된 몇몇 역사서나 지리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경험한 지역의 풍경은 기존의 선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저자의 직접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본 고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해당 공간을 의미화한 몇몇 필기와 기행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元代의 운남 기행문인 《大理行記》와 명대 초기의 사행록 《百夷傳》, 그리고 명대 萬曆 연간의 지리서이자 전문록인 《西南夷風土記》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기타 正

史나 지방지, 筆記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外國에서 邊境으로: 雲南 변경의 확장과 ‘百夷’의 발명

현재의 운남이 중국이 되는 과정은 조약이나 협정, 전쟁과 같은 특정 시점의 단발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닌 정벌, 행정기구의 설치와 운용, 혼종과 동화, 離反과 분리 등의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었다. ‘雲南’이란 이후에 나온 지역 개념이고 원래 이곳은 ‘南中’이라는 지역의 일부였다.⁷⁾ 東漢 시기 이미 永昌(현재의 운남 서남부와 미얀마 동북부) 지역에 郡을 설치하여 그곳을 제국의 강역으로 포함한 바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諸葛亮이 貴州와 雲南에 원정하여 蜀漢의 지배권을 확인했으나 蜀의 멸망 이후 사실상 중국의 南中 지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 3세기 이후 이 땅은 줄곧 토착민 지도자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사실상 중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唐代에는 일부 지역에 형식적이거나 郡縣 체제 속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邊郡이나 羈縻 체제 형태였고 대체로 자치와 독립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곳은 南詔國과 大理國에 의해 지배되면서 사실상 ‘外國’이 되었다. 남조국과 대리국은 중국의 문헌에서도 종종 외국으로 취급되었다.⁸⁾ 《新唐書》와 《舊唐書》에서 남조국을 각각 <西南蠻列傳>과 <南蠻列傳>에 포함시켰는데 여기 함께 수록된 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현재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사실상 異國으로 치부되었다고 짐작된

7) 현재 확인할 수 있는 南中의 공간적 범주는 통상적으로 제갈량 시대에 성립된 ‘南中 7군’, 즉 朱提郡, 牂柯郡, 興古郡, 建寧郡, 雲南郡, 永昌郡, 越嶲郡이다. 한동안은 交趾 지역도 남중에 포함되었다. 이 지역의 범위는 현재의 귀주 서부와 운남 전체, 사천 남부와 미얀마 동북부 일부, 베트남 북부까지 포괄하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었다. 정면, <後漢代 南夷 지역의 邊郡 지배와 ‘南中’, ‘南人’ 개념의 출현>(《중국사연구》 제49집, 2007.8) 참고.

8) 남조국과 대리국에 대한 개황은 김한규 저, 《天下國家: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 701-709쪽, 716-719쪽 참고.

다. 물론 南詔國은 오랫동안 唐의 조공국이었으나 때로는 당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 唐 대신 당시의 또 다른 강대국 吐蕃에게 臣屬하는 등 두 세력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선택하고 확보할 수 있었다. 남조국에 이어 이곳을 지배한 대리국은 《宋史》에서 아예 <外國傳>에 포함되었다. 즉 3세기 이후 천여 년의 시간 동안 운남과 그 주변 지역은 사실상 '외국'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雲南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된 것은 그곳의 마지막 독립 왕국이었던 大理國을 1253년 몽골이 점령하면서부터였다. 대리국의 판도는 서쪽으로는 현재의 운남과 미얀마 북부를 넘어 인도의 경계에까지 닿았고 남쪽으로는 태국 북부와 라오스 북부, 베트남 서부 일부를 포괄했었다. 쿠빌라이 치하의 몽골은 대리국 외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자바, 일본, 유구 등 인도차이나 대륙과 남동쪽의 섬나라들을 계속하여 공격한다. 몽골의 원정으로 당시 미얀마를 지배하던 파간 왕국은 사실상 궤멸한다. 하지만 몽골은 운남에서와 달리 이곳을 중국 땅으로 삼지는 못했다. 몽골은 두 차례에 걸친 미얀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미얀마 북부에 行省을 설치하여 형식상으로 제국 판도에 귀속시켰지만, 더위와 풍토병에 지친 몽골군은 14세기 초기에 철수한 뒤 다시는 미얀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⁹⁾ 중국이 대대적으로 동남아시아를 군사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몽골의 일련의 동남아 원정은 몽골로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전쟁'이었지만 이로 인해 운남과 그 부근의 나라, 민족들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동남아 공격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모여든 군인들이 운남에 집결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원정이 끝난 뒤에도 돌아가지 않고 운남에 정착하게 되었다. 운남 행성이 진행한 유가 교육과 더불어 외부 종족의 유입으로 인해 운남의 사회적, 문화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9) 1253년 대리국의 정복 이후 쿠빌라이는 미얀마의 파간 왕국에 사신을 보내 조공과 동맹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파간 국왕은 사신을 처형하며 거절의 뜻을 보인다. 결국 1283년 몽골군이 미얀마를 침략한 뒤 파간의 왕족을 명목상 왕으로 앉혔지만 파간 왕국은 사실상 붕괴했고 미얀마는 왕위 다툼과 북쪽 산족의 반란으로 분열되었다. 몽골은 1297년 반란 진압을 명목으로 다시 미얀마에 들어왔지만 산족에게 뇌물을 받고 철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몽골은 두 번 다시 미얀마로 들어오지 않았다. (William J. Topich and Keith A. Leitich, *The history of Myanmar*, Greenwood, 2010, 45-46쪽 참고)

게 된다.¹⁰⁾ 또한 몽골의 침입으로 운남과 미얀마 변경 지대의 산족(미얀마의 타이족)이 대거 남하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한다.¹¹⁾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천년에 걸쳐 상층문화를 이끌어온 산스크리트 문화가 사라지고 상좌부 불교(소승불교)를 신봉하는 타이족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¹²⁾

파간왕조가 사실상 몰락한 이후 산족 정치체들은 미얀마의 동북 지역에서 발호했고 그중 일부가 元에 조공 사절을 보내면서 원은 현재의 운남 서쪽과 미얀마 북동부, 태국과 라오스 북부에 토시 기구를 설립한다. 《中國歷史地圖集》의 元代 雲南行省 지도를 보면 지금의 미얀마와 태국 상당 부분이 元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¹³⁾ 지금의 미얀마 카친주 지역에는 蒙光路, 蒙萊路, 蒙隣路, 太公路 등이, 쟁퉁(Kengtung)과 치앙마이 주변 지역은 蒙慶宣慰司가, 현재 운남 서쪽 일부와 셴위(Hswenwi)의 서남쪽까지 金齒宣慰司가, 1338년에는 라오스 북부에 老告總管府가, 지금의 미얀마 만달레이 부근의 Pinya왕국(邦牙, 1312~1364)에는 1338년 운남행성 관할로 邦牙等處宣慰司가 설치되었다.¹⁴⁾ 이른바 ‘百夷’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그렇지만 이곳을 본격적으로 중국의 일부로 삼으려 한 것은 明의 개국 황제 洪武帝였다. 그는 元이 확장한 광대한 서남쪽 강역을 물려받았고 토시 제도도 계승하였다.¹⁵⁾ 하지만 홍무제가 지향했던 대외관계는 확장 지향적이었던 元

10) 배숙희, <蒙元제국의 雲南統治와 諸 종족간의 소통>, 《동양사학연구》 114, 2011.3.

11) 여기서 말하는 산(Shan, 掸)족은 미얀마 북부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이지만 사실 이들은 태국을 구성하는 타이(Thai, 泰)족과 함께 타이(Dai 혹은 Tai, 傣) 어족의 일원이다. 타이 어족에는 북베트남의 농족, 라오스의 라오족, 태국의 타이족, 버마의 산족, 중국 운남의 타이족이 포함된다.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아산: 산인, 2018, 123쪽 참고. 본 고에서는 편의상 이들 전체를 통칭할 때는 ‘타이족’, 미얀마 북부의 타이족을 지칭할 때는 ‘산족’이라 표기하겠다.

12) 박장식, <미얀마-중국 관계의 지속과 변화: 고전기에서 근대 이전까지>,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1999.6, 71쪽.

13)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元·明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6, 23-24쪽.

14) 통일왕국이었던 파간이 몰락한 뒤 상부 미얀마 지역에는 산족이 세운 도시 국가 형태의 정치체들이 등장하는데 핀야(Pinya)를 비롯하여 민자잉(Myinsaing, 1298~1312), 사가잉(Sagaing, 1315~1364)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소국들은 버마족 왕조인 아바(Ava, 1364~1555)에 흡수되었고 아바 왕국은 상부 미얀마를 장악한다.

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가 구상한 대외관계의 비전은 그가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에 잘 표현되어 있다.

安南, 占城, 朝鮮, 暹羅, 琉球, 동양과 서양, 南蠻의 小國들과 같은 海外的 夷들은 모두 산과 바다에 가로막혀 외진 구석에 위치하였다. 그 땅을 얻어봤자 물자 공급해주기에 부족하고 그곳 백성을 얻어봤자 부리기에도 부족하다. (만약) 부리면 (그들은)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변방을 어지럽히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에 좋은 일이 아니다. 그곳이 중국의 우환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병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다. 나는 이후 자손들이 중국의 부강함을 믿고 일시의 무공을 탐하여 병사들을 일으켜 백성을 상하게 할까 걱정이 다. 그래서 안 됨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단지 서북쪽 변경에 가까운 북방 오랑캐들은 대대로 우환이 되었으니 반드시 장군을 뽑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늘 신중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16)

朱元璋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원칙은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 명의 군사적 역량은 북방 변경에 집중되었고 동쪽과 남쪽과는 조공 관계를 통해 중국 중심의 대외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明은 민간무역을 금지하고 조공무역으로 일원화하면서 朝貢의 의례와 절차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였다.¹⁷⁾ 즉 明은 元과 달리 군사적 위협

15) 대리국 점령 후 원은 운남에 行省을 설치하고 路府州縣의 행정체계를 갖춘다. 더 먼 변방에는 宣撫司, 安撫司, 招討司, 長官司 등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대리국의 왕족이었던 段氏를 비롯하여 주로 현지의 토착민 지도자들을 책임자로 임명한다. 이러한 토사 기구는 운남에서 시작하여 四川, 貴州, 廣西 등에도 설치되었다. 토사는 세습이 인정되었고 군대도 보유할 수 있었다. 元이 만든 토사조직을 明도 기본적으로 계승했지만, 明은 토사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토사를 중국 관료의 일부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중엽부터는 대토사를 해체하여 지역의 割據를 방지하려고 하였다. 元과 明, 淸의 토사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王柯, 《中國, 從天下到民族國家》, 臺北: 政大出版社, 2017, 第六章 <大一統帝國的連續性與非連續性 - 宋明淸的土司制度> 참고.

16) “海外諸夷, 如安南, 占城, 朝鮮, 暹羅, 琉球, 西洋與東洋, 南蠻諸小國, 皆限山阻海, 僻處一隅, 得其地不足以供給, 得其民不足以使也. 使不自量而擾邊, 則不祥彼. 彼既不爲中國患, 而我輕用兵肆伐, 亦不祥甚哉. 我恐後世子孫, 倚中國富強, 貪一時武功, 便興兵傷民. 切記其不可. 惟胡戎密邇西北邊, 世爲患. 必選將練兵, 時謹, 備焉.” [英]崔瑞德 [美]牟復禮 編/楊品泉 等 譯, 《劍橋中國明代史(1368-1644)》 下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285쪽에서 재인용.

17) 홍무제는 1379년 고려 사절단을 되돌려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사절단이 가지고 온 선물이 외교적 의례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1380년에는 정해진 表文을 가지고 오지 않

대신 문화적, 상징적 권위로 동쪽과 서남쪽 국가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王庸武는 명의 황제가 원한 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인정하고 그가 황권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¹⁸⁾ 개국 초기 明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西南 변경에 존재하던 부락 혹은 小國의 우두머리들에게 부지런히 토사 직함을 부여하였다. 물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원대에 雲南 행성에 포함되었지만, 明은 대대적으로 토사 조직을 재편, 확장하여 이른바 ‘百夷’ 지역인 雲南 서남부 변경의 小國들과 미얀마까지 明 제국 중심의 천하 구도 속에 진입하게 되었다. 明初에 설치된 雲南 변경의 토사 기구를 아래 표에 정리한다.¹⁹⁾ 그리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토사 구역은 각 주로 별도 설명하였다.

토사 명칭	설치 시기	현재 위치
麓川平緬宣慰使司 ²⁰⁾	1382년	雲南 瑞麗 부근
車里軍民宣慰使司	1386	雲南 西雙版納(景洪)
景東府	1382	雲南 景東
八百軍民宣慰使司 ²¹⁾	1388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인근
緬甸軍民宣慰使司 ²²⁾	1394	상부 미얀마, 지금의 만달레이 부근
孟養軍民宣慰使司 ²³⁾	1382	미얀마 카친주(Kachin State)
木邦軍民宣慰使司	1382	미얀마 산주(Shan State) 헨위(Hswenwi) 주변
孟定府	1382	雲南 耿馬傣族佤族自治縣 부근
孟良府	1405	미얀마 산주 칹퉁(Kengtung) 부근
鎮元府	1382	雲南 鎮元 일대
元江軍民府	1382	雲南 江城哈尼族彝族自治縣과 북쪽 지역
灣甸州	1382	雲南 昌寧縣
鎮康州	1382	雲南 鎮康縣 부근
大侯州	홍무연간	雲南 元縣

었다는 이유로 일본 사절단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티모시 브룩 지음/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2014, 429쪽.

18) [英]崔瑞德 [美]牟復禮 編 앞의 책 277쪽.

19) 于秀情, 《明朝經營百夷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3, 14-25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토사 기구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나 일괄적으로 처음 설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위치는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冊》 第七集(元明時期)(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6)을 기반으로 하여 추산한 대략적인 위치이다.

千崖宣撫司	1382	운남 盈江
南甸宣撫司	1382	大盈江(이리와디 강 상류) 동쪽에서 騰冲 사이 지역
潞江安撫司	1382	운남 保山
都樂甸長官司	1398	운남 恩樂
老撾宣慰使司 ²⁴⁾	1403	라오스 북부
孟璉長官司	1406	운남 傣族拉祜族佤族自治縣과 살원강 동쪽
芒市長官司	1382	운남 潞西
孟密安撫司	成化年間	미얀마 산주 몽밋(Mongmit) 부근
蠻莫安撫司	1585	미얀마 카친주 바모(Bhamo, 八莫) 부근

위의 표에 의하면 현재 운남의 서남부, 미얀마 동북부, 태국 북부와 라오스

- 20) 麓川平緬宣慰使司는 원이 설치했던 麓川路和 平緬路를 통합한 것이다. 麓川은 '劬卯'의 漢譯이다. 雲南 瑞麗 지역 일대에 해당한다. 平緬은 지금의 隴川 지역을 의미한다. 모두 현재 운남의 最西端에 위치하며 미얀마와 접경 지역이다. 현재는 중국 境內에 있으나 당시 이곳은 모산(MawShan, 磨擇 혹은 卯擇)이라 불리는 Tai Yai 계열 타이족의 주요 근거지였다. 正統 연간에 이곳의 통치자인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켜 세 번에 걸친 원정 끝에 선위사는 폐지된다.
- 21) 원래 태국의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인근에 란나(Lan Na)국이 있었는데 중국문헌에는 '八百媳婦'라 기록되어 있고 줄여서 '八百'이라고도 하였다. 원은 1282년과 92년 두 번에 걸쳐 팔백식부국을 원정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이후 오히려 팔백식부국이 운남 변경을 침략하기도 했다. 이후 팔백식부국과 元은 招諭 정책을 통해 교류를 진행했고 원은 이곳에 八百等處宣慰使司를 설치한다. (배숙희, <원대 운남 서남의 변경지역과 주변국간의 관계>, 《중국사연구》 제113집, 2018.4 참고) 이후 명의 홍무제는 八百宣慰司를 설치했고 이후 八百大甸宣慰司가 되었다가 가정 연간에 緬甸에 함락되어 팔백대전선위사는 폐지된다.
- 22) 여기서 선위사가 설치된 '緬甸'은 현재 미얀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미얀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토사는 당시 상부 미얀마를 지배하던 아바왕국(1354~1555)에 설치되었다. 《明史》의 <雲南土司傳>에 의하면 원래 홍무제가 집권 즉시 사신을 미얀마로 보냈으나 베트남에서 발이 묶여 끝내 가지 못했고 홍무26년에 八百國(현 태국 치앙마이 부근) 사신의 중재로 비로소 조공 사절이 왕래하게 되었고 27년에 緬中宣慰使司를 설치한다. 영락 연간에 緬甸宣慰使司를 별도로 설치하여 미얀마에 두 곳의 선위사를 두게 되었다.
- 23) '孟養'이란 미얀마 북쪽 산족의 부락 연맹인 'Mong yang'을 音譯한 것으로 보인다. 맹양은 아바 왕국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1527년 수도인 아바를 점령한다. 맹양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두 번째 통일 왕조인 퉁구(Toungoo) 왕조가 들어서는 16세기 중반까지 상부 미얀마를 지배하였다.
- 24) 老撾宣慰使司는 현재 라오스 북부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일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永樂 2년(1403) 설립되어 萬曆 41년(1613) 마지막 조공까지 43차례 진공하였다. 《明史》의 <雲南土司傳>의 기록에 의하면 명 조정이 토관을 임명하면서 信符 및 金牌, 토관의 관복 등을 하사하고 老撾 측이 정기적으로 入貢하기를 했지만 老撾가 安南, 미얀마 등의 침략을 받았을 때 명은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만력 연간 미얀마의 퉁구 왕조가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때 老撾 역시 명을 버리고 미얀마에 歸附하기도 했다. 대체로 명과 老撾의 관계는 일반적인 조공 관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에 이르는 이른바 ‘百夷’ 지역들의 상당 부분이 토사 체제를 통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明의 관도에 들어와 있었다. 물론 조공과 형식적인 납세를 제외한 현지 통치는 사실상 토착민 지도자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문화적 측면을 제외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특정 영역이 중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編戶齊民’ 여부, 즉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民이 호적에 기재되어 국가의 관리가 가능한가이다. 그런 면에서 ‘백이’ 지역은 정기적으로 土官들이 朝貢을 납부하고 세금을 내기는 했으나 인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사 기구마다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즉 편호제 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금은 土官에게 납부 책임이 주어졌 있었으며 그 금액은 실제 국고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귀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⁵⁾ 물론 이 토관 직위는 토착민 지도자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세습하였다.

애초에 명이 미얀마를 포함한 운남 변경의 타이족 정치체들을 토사라는 시스템 속에 귀속시키려 했던 것은 서남부 지역에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타이족 小國들과 미얀마를 이러한 토사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명의 판단은 상당 부분 착오였음이 이내 드러났다. 중국 측 문헌에는 끊임없이 영토 쟁탈전을 벌이는 小國들의 투쟁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 의해 府, 司 혹은 宣慰司, 宣撫司, 安撫司 등의 단위로 조직된 이들 小國들은 원래 부락 연맹과 비슷한 타이족 특유의 정치체 ‘muang’(혹은 mounng 으로 표기)에서 유래하였다.²⁶⁾ 이들 정치체의 정치 권력은 분산적이고 덜 집약적이다. 이들의 영토 역시 영구적이기보다 유동적이

25) 예를 들어 비교적 규모가 큰 木邦宣慰司는 매년 銀 8錠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한다. 于秀情, 《明朝經營百夷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3, 37쪽 참조.

26) 타이족은 경제 특징상 복잡하고 계층적인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유지해왔다. 한 개인은 한 마을(baan)에 사는 가족(huon)의 구성원이다. 반면 마을은 ‘구역’ 혹은 muong 의 일부이다. mounng 혹은 muang 은 하나의 계곡 혹은 평지에 있는 마을들로 구성된 보다 큰 정치적, 사회적 단위를 의미한다. 때로 일부 muong 들은 小國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C. Patterson Giersch, 앞의 책 27쪽) 孟定, 孟璉, 孟艮, 孟養 등 이 지역의 토사 구역 이름에 종종 붙어 있는 ‘꺄’은 아마 이 muong을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며 임시적이다. 이들의 지리적 범주는 특정 지역에 못 박혀 있기보다 ‘영향지대(zones of influenc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²⁷⁾

이 小國들은 때로는 미얀마나 태국과, 때로는 중국과 연합하거나 대항하기도 했고 자신들끼리도 끊임없이 싸운 것으로 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²⁸⁾ 그럴 때마다 明은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이 각자의 영역을 보존하고 중국이 구성한 변경 질서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운남 변경의 상황은 결코 중국 측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명대 초기 발생한 일련의 ‘麓川’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元은 현재 운남의 서쪽 끝에 위치한 瑞麗 부근에 ‘麓川路’를 설치했었다. 元末부터 이 지역의 土官이자 실제 집권자인 思可法은 주변 土官들의 영지를 잠식하면서 지역 세력으로 성장한다. 明은 집권한 뒤 사가법의 아들 思倫發에게 ‘麓川平緬軍民宣慰使’의 직책을 수여하지만 사윤발은 계속 주변 토사 지역을 침공하여 明이 구축한 토사 체제의 질서에 도전한다. 1388년 홍무제는 沐英을 파견하여 사윤발을 공격하게 했고 사윤발은 주변 지역으로 도망했지만 결국 다시 명의 용서를 얻어 선위사 직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후 녹천은 세력 확장을 거듭하여 결국 운남 부근의 타이족 지역을 모두 장악했고 사실상 명 통제에서 벗어난다.²⁹⁾ 이후 사윤발의 아들 思任發은 운남 內地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조공, 납세 등 토사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곳에 ‘麓川王國’을 수립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明은 正統 연간에 세 번에 걸쳐(1441, 1443, 1445년) 湖廣, 貴州, 四川 등지의 군대를 이동시켜 麓川을 공격한다(‘三征麓川’). 사임발은 미얀마(緬甸, 당시 아바 왕국)로 도망했고 미얀마 왕과 明이 사임발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사임발이 자살한다. 결국 미얀마 측이 사임발의 시신을 明에 넘겨줌으로써 녹천 왕국의 야망은 종결되고 明은 녹천의 자리에 隴川선위사를 세운다. 하지만 사윤발의 손자 思

27) Jon Fernquest, “Crucible of War: Burma and the Ming in the Tai Frontier zone(1382-1454)”,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4.2(Autumn 2006), 32쪽.

28) 于秀情, 앞의 논문 52-59쪽에 緬甸, 木邦, 八百大甸, 車里, 孟密, 孟養 등의 토사들이 明과 충돌하는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29) 麓川 사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尤中, <明朝‘三征麓川’敍論>, 于秀情, <明朝經營百夷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3, 49-52쪽 참조.

祿發은 여전히 孟養에서 할거하며 왕처럼 군림했고 明은 金沙江(이라와디강)을 넘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묵인한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 충격을 주었으나 사건의 전말을 해석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明史》는 이 사건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토사 간의 세력 다툼으로 해석했지만³⁰⁾ 미얀마 측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황제가 사임발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미얀마 측(당시 아바 왕국)에서는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³¹⁾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 아바 측은 자신들이 명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여겼으나 明은 시체를 넘겨받음으로써 아바가 명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³²⁾ 아무튼, 10여 년에 걸쳐 주변 타이족 小國들과 미얀마가 모두 개입된 麓川과의 이 지루한 전쟁을 중국 역사학자들은 ‘三征麓川’이라 칭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원정이 결과적으로 산족(미얀마의 타이족) 귀족들을 이라와디 강 서쪽으로 몰아내어 內地와 단절시키고 훗날 퉁구 왕조에 이 지역을 내준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³³⁾ 즉 당시의 군사 행동이 百夷 지역 상당 부분을 중국의 강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이다. 미얀마와 태국의 타이족 小國의 지도자가 명대 초기에 중국의 토사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이곳이 한때 중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본 고의 고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당시 미얀마나 주변의 타이족들이 스스로를 명 제국의 구성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놓여 있던 이 ‘百夷’ 공동체들, 즉 타이족 小國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麓川, 즉 猛卯(Moung Mau)는 타이족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두 종류 중 하나인 Tai Yai(혹은 Shan, 掸)족의 중심지였다. 이들은 고유의 정치시스템과 행정조직, 생활방

30) 張廷玉等撰, 《明史》〈列傳〉第二百三, ‘雲南土司’三, 北京:中華書局, 第二七冊, 8131쪽 참고.

31) 김성원, 《미얀마왕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년, 138-139쪽.

32) Htin Aung, Maung, *A History of Burma*, New York a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94-95쪽.

33) 尤中, <明朝“三征麓川”敍論> 참고.

식을 지니고 있었다. 思氏의 麓川 王國은 아마 이들 Tai Yai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것이다. 당시 운남 서쪽(滇西)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도 이들이었다. 하지만 1440년대 明에 의해 궤멸된 이후 이들은 두 번 다시 이렇게 강력한 국가 형태로 발전되지는 못했고 작은 부락 단위로 쪼개진다.³⁴⁾ 당시 이들이 통치하던 땅은 이후 일부는 중국으로, 일부는 미얀마로 귀속되었다. 타이족 小國들의 영토는 항구적이지 않았고 분명한 경계도 없었다. 이들은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미얀마에 臣屬했다. 元 이후 줄곧 중국의 토사였던 車里(현재의 西雙版納 일대)와 다른 타이족 小國들은 미얀마에 강력한 땡구 왕조가 들어서자 미얀마에도 함께 조공을 바친다. 당시 이들에게 있어 미얀마는 중국 못지않은,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였다. 타이족 귀족들에게는 “haw pin paw, man pin mae(아버지는 중국, 어머니는 미얀마)”가 자연스러운 경구였다고 한다.³⁵⁾ 타이족 小國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이나 미얀마와 같은 강대국의 항방에 늘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웠고 만약 강력한 왕국이 출현하면 이들과 적극적으로 제휴, 혹은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종종 朝貢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土司 체제 속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타이족들의 충성 대상이 중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타이족들의 토사 체제는 명대 중기 이후 이미 느슨해져 있었고 중국과의 조공 관계 역시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동북아시아와 달리 조공 관계가 통상관계를 규정하는 조공 무역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³⁶⁾ 이들은 조선이나 유구 등과 달리 명과의 조공 관계에서 사상적, 문화적으로 내면화된 수직적, 계층적 국제 질서를 수용하고 있기보다는 명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영토 확장과 권력 다툼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명이 개국 초에 의욕적으로 구성했던 운남 변경의 국제 질서는 곧 전환점을

34) C. Patterson Giersch, *Asian Borderlands: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27-28쪽 참고.

35) C. Patterson Giersch 앞의 책 35쪽.

36) 박장식, 앞의 논문 64쪽.

맞게 된다. 明은 영락 연간 베트남 침공에서 엄청난 內傷을 입었고 곧이어 진행된 ‘三征麓川’에서 북방에서 사용해야 할 군사력과 물자까지 소모한 직후 1449년 황제가 몽골의 포로가 되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을 맞이한다.³⁷⁾ 한편 사임발의 죽음으로 미얀마 아바 왕조에 원한을 가지고 있던 孟養은 이후 1527년에 木邦과 孟密등의 다른 산족 연맹들과 연합하여 아바를 침략하여 아바 국왕을 살해한다. 이후 미얀마 남쪽에서 땡구(Toungoo, 1531~1752)왕조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한다.³⁸⁾ 파간 왕국에 이어 2백여 년 만에 등장한 통일 왕조 땡구는 상부 미얀마로 진격하여 또다시 산족(타이족) 小國들과 영토 쟁탈전을 벌였고 운남의 경계까지 위협하였다. 땡구 왕국은 따빈시웨띠(Tabinshwehti莽瑞體, 재위 1531~1550)과 바인나웅(Bayinnaung莽應龍, 재위 1550~1581)의 치하에서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미얀마를 통일했을 뿐 아니라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 ‘八百’으로 불리던 란나(Lan Na)국도 점령한다. 또한 孟養, 孟密, 蠻莫, 木邦 등 明이 토사를 설치했던 운남 서쪽 변경의 타이족 지역도 모두 미얀마의 차지가 된다.³⁹⁾ 운남 騰冲 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미얀마 세력을 막기 위해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빚었던 明은 결국 1594년 盈江, 隴川, 瑞麗 등에 ‘八關’을 설치하고 병사를 주둔시켜 수비를 맡긴다. 이 八關은 원래 미얀마의 군사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원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보다 ‘팔관’은 명의 통제 범위를 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만력 시기가 되면 어떤 이들은 팔관 안쪽을 ‘內夷’, 팔관 바깥쪽을 ‘外夷’라고 여겼고 토착민들은 이를 명나라의 邊界로 착각하게

37) 939년 베트남은 漢代부터 지속된 천여 년의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이후 몽골의 침입도 막아내었다. 永樂帝는 1404년 베트남을 무력 침공하여 이곳을 다시 중국으로 회귀시키려고 했으나 10년 간 이어지는 베트남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결국 군대를 철수시킨다. 명의 베트남 철수는 주변의 산족 연맹에게 다시 발호할 기회를 주었다. 세 차례에 걸친 녹천 정벌 직후 1449년 正統帝는 몽골 오이라트와 일전을 벌이다 土木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 이른바 ‘土木의 變’을 겪는다.

38) 땡구 왕국이 북쪽의 아바 왕국, 산족 연맹, 남쪽 몬(Mon)족의 페구(Pegu, 1287~1530) 왕국을 모두 격파하고 1539년 미얀마를 통일하는 과정은 최병욱 저, 앞의 책 265-266쪽, William J. Topich and Keith A. Leitich, 앞의 책 42-51쪽 참고.

39) 만력 연간에 벌어진 미얀마와 명의 영토 쟁탈전의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王春橋, 《邊地土司與近代滇西邊界的形成》, 雲南大學 博士論文, 2015, 116-129쪽 참고.

되었다고 한다.⁴⁰⁾ 이후 명은 서남부 변방의 다툼에 군사적 개입을 극도로 억제했고 朝貢 체제 역시 애초의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채 일종의 상업 거래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⁴¹⁾ 이후 미얀마의 왕은 황제의 하사품을 받고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巡撫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明史》는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다.⁴²⁾ 아바에 이어 상부 미얀마를 차지한 쩡구 왕국의 왕은 16세기에 치앙마이, 아유타야, 라오스 등을 정복하며 중국에 대한 조공을 점점 소홀히 하였다. 17세기 초까지 형식적인 관계나마 유지했던 이유는 조공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⁴³⁾ 이제 명이 바라던 조화로운 ‘隣好’관계는 가망 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운남 변경은 영토 쟁탈과 복수를 위한 격전의 장이 되었다.

송대까지 ‘외국’이었던 운남이 원대 이후 ‘변경’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의 변경은 서남쪽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元과 명이 ‘토사’라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확보했던 서남부 변경은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큰 기묘한 공간으로 남는다. 明初에 시작된 토사 체제는 시종일관 명의 서남부 변경의 대외관계를 지배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특정 역사적 국면에서의 중국의 ‘안과 밖’은 대단히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토사가 있었다는 미얀마의 산주와 카친주, 만달레이, 태국의 치앙마이는 중국의 안과 밖 중 어디에 있었을까? 명과 미얀마 사이에서 계속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던 小國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디로 귀속시키고 있었을까? 본고는 이 질문에는 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元明대의 문헌들이 이곳을 어떻게 재현하고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현 방식이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보다 집중하려고 한다. 위에서도 보듯이 중국과 서남 변경, 미얀마와의 관계는 시대적으로 많은 부침

40) 王春橋, 앞의 논문 131쪽. 물론 이는 八關 以西의 토사 구역이 ‘원래’ 중국의 것이었는데 이를 미얀마에게 빼앗겼다고 여기고 있는 중국학계의 견해이다. 尤中和 같은 운남사 학자들은 이 팔관의 설립으로 인해 “(팔관) 바깥에 있는 토사 지역을 미얀마의 쩡구 왕조에게 던져 준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앞의 논문)

41) [英]崔瑞德, [美]牟復禮 編, 앞의 책 280쪽.

42) 《明史》, 8134-8135쪽.

43) 미얀마의 마지막 조공 사절은 1628년이었고 이후 미얀마 조공 사절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박장식 앞의 논문 78쪽.

을 겪어왔지만, 중국은 현실적인 경계나 강역의 양상을 실제 대외관계로 치환하여 인식하기보다 주변 정치체들을 중국 중심의 천하 구도 내지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일부로 포섭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인식과 구상은 글쓰기 속에서 재현되고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 구성되어 전파된다. 본 고에서는 변화하는 대외관계와 국제 환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중국 측의 인식과 태도를 새삼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해석이 외부 공간에 대한 재현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재현들이 결국 자아-중국-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 元 제국의 새로운 ‘중국’: 《大理行記》의 공간

앞에서 밝혔듯이 3세기 이후 천 년 동안 운남은 중국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몽골군의 진격 이전에는 이곳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판도 안에 있던 곳이 아니었고 문화적, 사상적으로 漢化가 진행되었던 곳도 아니었다.⁴⁴⁾

몽골이 대리국을 점령하고 30여 년이 지난 뒤 운남행성의 관리로 부임한 郭松年是 두 번에 걸쳐 운남의 주요 역사 유적과 명승지를 둘러보고 《大理行記》를 쓴다.⁴⁵⁾ 이 책은 아마 운남이 중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이 기록

44) 중국 사학계에서 남조국의 지배층은 타이족이 아닌 白族과 彝族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어쨌든 인종적으로 증원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물론 남조국은 唐으로부터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깊이 받았을 것이지만 김한규는 남조국이 정치제도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 티베트 등 이웃 나라들과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앞의 책 706-707쪽 참고)

45) 저자 郭松年의 號는 方齋이고 雲南 西台御使를 지냈다. 그의 생졸 연대와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曠松年이 운남에 두 번 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언제 운남에 갔고 언제 이 책을 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方國瑜의 고증에 의하면 이 책은 그가 서태어사로 운남을 순행할 때 지은 것으로 大德 元年인 1297년 이후로 보인다. 그리고 至元17년(1278)에서 20년(1281) 사이에도 운남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曠松年의 운남 여행 시기와 이 책의 成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한 운남 기행문일 것이다. 이제 막 중국의 판도 안으로 진입한 ‘과거의 外國’을 ‘華夏’의 눈으로 재현한 초기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학계는 南詔나 大理國을 ‘政權’ 정도로 치부하거나, 독립 성격의 왕국임을 인정하더라도 이 역시 중국 역사의 일부라 해석하는 ‘정치적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⁴⁶⁾ 그래서 중원의 문화나 행정, 경제 체제가 과거 남조나 대리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많은 관심을 두곤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대리행기》 역시 본질적으로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국과 대리국이 漢族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저자는 이곳에서 중원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쓴다.

“옛 대리국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다섯 姓을 고수하였다. 唐末五代에 혼란한 시기에는 중국과 맞서기도 했었다. 송나라가 일어났을 때 북쪽에는 큰 적이 있었다. 먼 곳을 經略하지는 못하고 서로 함께 사신을 왕래시키며 중국과 통하였다. 궁전, 누각, 언어, 쓰고 세는 법 및 의관과 관혼상제의 예의, 전술과 병법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그들의 제도나 복식, 동작, 말투와 행동은 대략 한나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중국) 옛 나라의 유풍이 남아 있는 듯하다.”⁴⁷⁾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운남 고유의 정체성이나 지역성을 발굴하려는 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중원과 다른 이곳 사람들의 일상생활, 언어, 종교 활동의 차별성을 전혀 부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곳은 원래 중원의 일부였고 원의 대리국 정복은 곧 중원의 옛 땅을 수복한 것

할 것. 方國瑜, 《雲南史料目錄概說》 一冊, 北京: 中華書局, 1984, 245-246쪽. 王叔武 <序例>, 郭松年·李京 撰/王叔武 校注, 《大理行記校注·雲南志略輯校》, 雲南民族出版社, 1986.

46) 운남사의 대가인 方國瑜는 “중국 역사는 整體性を 지니고 있다. 정체 안에서 몇 개의 정권이 출현하든,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못하든 간에 결코 整體를 파괴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중국의 整體를 역사의 범위로 삼아야 하며 역대 왕조의 강역을 역사 범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方國瑜著/林超民編, 《方國瑜文集》 第一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1, 5쪽)

47) “故大理之民, 數百年之間五姓守固, 值唐末五季衰亂之世, 嘗與中國抗衡. 宋興, 北有大敵, 不暇遠畧, 相與使傳往來, 通於中國. 故其宮室, 樓觀, 言語, 書數, 以至冠婚喪祭之禮, 干戈戰陳之法, 雖不能盡善盡美, 其規模, 服色, 動作, 云爲, 略本於漢. 自今觀之, 猶有故國之遺風焉.” (元)郭松年 撰/王叔武 校注, 《大理行記校注》, 雲南民族出版社, 1986, 20쪽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이 중국으로 회귀하게 된 것 역시 필연이라고 보고 있다. “옛 사람들은 金城의 연못이 만대 동안 전승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들이 북쪽에서 내려와 북 한번 치니 멸망하고 말았으니 정말로 탄식할 일이다! 이것이 어찌 (나라를 지키는 것이) 德에 있을 뿐 험한 지형에 있지 않다는 말이 꼭 들어 맞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⁴⁸⁾ 그의 시야 속에서 大理와 그 주변 지역은 중원 문명에 의해 수립된 역사적 계보에 의거하여 다시 쓰이고 있다. 그가 발 닿는 모든 장소는 중원과의 관계로 재구성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결코 낮설지 않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곳을 통치하기 훨씬 이전부터 운남 서쪽이나 미얀마 북쪽에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중원 문화와의 교류나 침투 흔적 - 제갈량의 南征과 같은 - 을 기념물과 같은 物的 근거로 남기려는 시도가 존재했었다.⁴⁹⁾ 唐代의 南詔國을 기록한 樊綽의 《蠻書》에는 ‘諸葛武侯城과 그 안에 있는 神廟가 그곳 蠻夷들의 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⁰⁾ 이렇게 허구성이 가미된 역사 서사는 중원과의 관계라는 특정 맥락 속에서 운남 변경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계보화하는 기능을 해왔고 문헌 기록과 각종 기념물을 통해 전파, 계승되어왔다. 때문에 중원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온 이 공간 속에서 과거 중원 문명 전파의 흔적을 찾으려는 광송년의 시도는 일견 자연스러운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리행기》는 역사서나 공문서가 아니라 미학적 완성도를 염두에 두고 쓴 산문이다. 전반적으로 그의 문체는 唐宋산문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歐陽修나 王安石의 문장과 비슷하다고 한다.⁵¹⁾ 이곳의 자연경관이나 지리적 풍

48) “昔人用心，自以爲金城湯池，可以傳之萬世。及天兵北來，一鼓而下，良可嘆哉！此非在德不在險之明效大驗歟？”(元)郭松年 撰/王叔武 校注, 앞의 책 18쪽.

49) 정면은 제갈량의 南征이 滇西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음에도 이곳에 제갈량의 남정을 기념하는 사당 등 기념물이 설치된 것에 대해 제갈량의 남정을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로 활용하는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雲南의 諸葛亮 - 南蠻 정벌 전설의 西進과 南詔國>, 《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 1호, 2018년 5월)

50) “隔候雲山西邊大洞川，亦有諸葛武侯城。城中有神廟，土俗咸共敬畏，禱祝不闕。蠻夷騎馬，遙望廟卽下馬趨走。”(唐)樊綽 撰, 《蠻書》 卷6 <雲南城鎮>, 向達 校注, 《蠻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1962, 160쪽.

51) 李勃, <讀郭松年大理行記的另一種收穫>, 《中央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1年 第3期 第28卷.

경은 현지인들이 밭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상당히 몽환적으로, 신비화되어 재현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종종 중원의 지식인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언어적 비유와 재현 방식이 동원된다. 그래서 이곳은 신비롭고 아름다우나 결코 낮설어 보이지는 않는다.

저 點蒼山은 남북으로 뻗은 것이 백여 리 정도 된다. 봉우리와 산등성이마다 바위와 산골이 있고, 빛나는 구름에 눈을 이고 있어 사계절 내내 녹지 않는다. 위에는 高河와 寶海가 있다. 샘물이 용솨스치며 뿜어져 나오는데 물은 거울처럼 뚫을 듯 투명하니 털끝만 한 것도 감출 수 없다. 아름답고 신기한 나무와 풀들이 반짝거리며 드리우고 (물에) 거꾸로 비친다. 바람이 불면 눈이 날리니 神龍이 거하는 듯하다. 가뭄이 들면 이곳에 기도를 올리면 영험함을 보여준다.⁵²⁾

《대리행기》에서 이 땅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 중국 문명의 흔적이 일종의 '기원'으로 남아 있는 공간인 동시에 중국적 글쓰기 전통에서 익숙한 수사와 비유를 통해 발견되는 심미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泉源噴湧, 水鏡澄徹”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재현되어⁵³⁾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결코 낯선 ‘異域’으로 의미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공유되는 레토릭과 비유에 의지하여 이곳을 표현했듯이 그의 재현 역시 계승, 전파되어 이 공간을 특정한 심미 공간으로 상호 공유하기 위해 활용되었다.⁵⁴⁾ 《대리행기》는 이역을 재현할 때 흔히 드러나는 이른바 ‘경계선 긋기’나 ‘야만화’와 같은 ‘상상의 지리(imaginative geography)’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저들과 우리의 차이를 부각하고 저들을 타자화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

52) “若夫點蒼之山, 條岡南北, 百有餘里. 峰巒岩岫, 縈雲戴雪, 四時不消. 上則高河寶海, 泉源噴湧, 水鏡澄徹, 纖芥不容, 佳木奇卉, 垂光倒景, 吹風噓雲, 神龍所宅, 歲早祈禱, 靈貺昭著.” (元)郭松年 撰/王叔武 校注, 앞의 책 20쪽.

53) 이 대목은 東晉 시대 명필로 유명한 王獻之(344~386)의 <鏡湖帖>에 나오는 “거울같은 호수 뚫을 듯 투명하고, 맑은 물 쿵쿵 쏟아지네(鏡湖澄澈, 清流瀉注)”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54) 광송년이 재현한 점창산의 이미지는 이후에도 모방, 계승된다. 明의 吳懋는 <點蒼山記>에서 “上有泉寶馮河, 璇淵碧樹, 潭開水鏡, 纖芥不容”이라 하였다. (郭松年 撰/王叔武 校注, 앞의 책 21쪽에서 재인용)

는 그러한 방식은 인간이 외부를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자기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국이나 이역 관련 문헌에서는 공간을 낮설게 하는 ‘차이’의 레토릭이 주로 그들의 물리적 외양이나 풍속을 통해 드러나곤 하였다. 하지만 《대리행기》에서는 그것을 찾기 힘들다. 이 공간에서는 ‘일상’이 소거되다시피 하였다. 正史의 外國傳이나 지리서에서 흔히 보이는 야만인들의 외모와 복식, 풍속에 대한 묘사조차 없다. ‘차이’에 대한 감각은 최대한 억제되어 있고 이국적인 자연 풍광은 중원의 자연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비유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한결 익숙한 상상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이곳이 낯선 이역이 아닌 단지 아름다운 심미 공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당시에도 살아가고 있던 토착민들의 삶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유일하게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서 포착한 것은 종교 생활이다. 남조국과 대리국의 국교였던 불교는 원래 吐蕃(티벳)에서 유래한 密敎였지만 그는 여기서도 중원 문화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애쓴다. “여기에는 탐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두 개는 작다. 큰 것은 높이나 2백여 尺이나 된다. 모두 16등급이 있는데 대단히 정교하다. (이는) 당나라에서 유명한 匠人 恭韜와 徽義를 파견해서 만든 것이다” “경전은 모두 중국과 같다.”⁵⁵⁾ 그는 과거 제갈량의 유산과 唐의 장인이 만든 불탑 등에서 중원문화의 자취를 찾으며 이곳을 중국의 일부로 의미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중국인의 눈에는 대단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법한 일상의 디테일들을 누락시키고 중국적 글쓰기 전통 안에서 충분히 재현 가능한 풍경 묘사를 위주로 서술을 진행한다. 민족지적 서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토착민을 일종의 배경처럼 배치하는 ‘자연처럼 보이는(naturalize)’⁵⁶⁾ 도구적 재현조차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5) “中有三塔，一大二小，大者高二百餘尺，凡一十六級，樣製精巧，即唐遣大匠恭韜徽義所造。” “所誦經律一如中國。” (元)郭松年 撰/王叔武 校注, 앞의 책 23쪽.

56) 프렛은 유럽 박물학자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를 탐험하면서 지형, 동식물 위주의 서술을 진행하여 정작 인간 세계는 일종의 배경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을 ‘자연처럼 만들기(naturalize)’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식의 재현 속에서 사람은 교체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존재이며 서발턴(subaltern)의 상태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메리 루이스 프렛/김남혁 옮김,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2015, 120-121쪽)

막 元의 새로운 강역이 된 이곳을 ‘中國’으로 만들기 위한 계보와 역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자는 선택적으로 事物을 배치하고 재현해야 했다. 《대리행기》 속에 유적과 자연만이 있고 ‘사람’이 없어야 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皇明帝國’의 一隅: ‘百夷’와 ‘西南夷’의 서사

중국 正史에 미얀마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舊唐書》와 《新唐書》 부터였는데 이는 唐 樊綽의 《蠻書》의 영향일 것이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해양부 동남아시아 지역도 진작부터 正史에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뒤늦게 포착이 된 셈이다. 《蠻書》 및 《舊唐書》, 《新唐書》에서는 상부 미얀마에 있었던 驃國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미얀마에 대한 세계 최초의 문헌 기록이라고 한다.⁵⁷⁾ 표국은 18개의 屬國, 아홉 개의 鎮城, 298개의 部落을 지닌 큰 나라로 소개되어 있다. 이곳 백성들은 7세가 되면 모두 머리를 깎고 20세까지 절에서 불법을 익히며 생명을 존중하고 재판이나 차꼬조차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묘사되어 있다.⁵⁸⁾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미얀마나 태국, 라오스 등 운남 주변의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원대 이전 중국인들에게는 미지의 땅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표국 이후 사라졌던 미얀

57) ‘驃’는 Pyu, 혹은 Py의 漢譯이다. 원래 나라가 아닌 종족의 명칭이다. 기원후 1~2세기 경부터 이라와디 강 중상류에 살기 시작했다. 표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고 불교를 숭상했으며 고유의 음악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다. 839년 南詔의 침입이 있었고 그 무렵 이라와디 강 중류로 내려온 버마족에 밀려 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발견된 것은 1113년 비문이다. 이들은 서적을 통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들 자신의 기록은 비문이 유일하고 서면 기록은 중국 자료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병욱 앞의 책 139-141; William J. Topich and Keith A. Leitich, 앞의 책 37-38쪽 참고.

58)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中國 正史 外國傳·新唐書》 下, 2011, 1021-1022쪽. (唐) 樊綽 撰/向達 校注, 앞의 책 233쪽 참고.

마에 대한 기록은 《宋史》에 다시 등장한다. 정사에서 처음으로 外國傳이 편성되었던 《宋史》에는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국인 파간(Pagan, 蒲甘國)이 기록되어 있다. 파간이 1106년에 入貢하자 尙書省에서 이 나라는 '대국의 왕(大國王)'이므로 작은 속국으로 낮춰볼 수 없고 大食國이나 交趾와 같은 예로 대해야 한다고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⁹⁾ 이 시기까지만 해도 미얀마와 그 주변 나라들은 외국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운남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북부를 중국 판도 안으로 끌어들인 元 제국에 이어 홍무제의 야심 찬 '皇明帝國'의 이상이 더욱 구체화, 제도화되었음은 이미 2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이상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명대 초기의 문헌으로 《百夷傳》을 꼽을 수 있다. 《백이전》은 명대 초기 운남 주변의 小國들과 미얀마에 대한 기록이다. 미얀마를 직접 경험한 중국인의 기록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명대 洪武 연간에 錢古訓과 李思聰이 홍무제의 명령으로 미얀마와 그 인근 변경 지역을 방문한 뒤 기록한 일종의 사행록이다. 이들의 사행 목적은 麓川·平緬宣慰司의 사운발과 미얀마 아바 왕국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대 초기 麓川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1394년 명이 미얀마에 緬中宣慰使司를 설치한 직후 1395년과 96년 미얀마는 연속으로 사신을 보내 麓川平緬宣慰使가 영토를 침입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李思聰과 錢古訓을 파견하여 緬國, 즉 미얀마 아바 왕국과 당시의 타이족 연맹인 '百夷'(여기서는 麓川)를 중재하도록 한 것이다.⁶⁰⁾ 당시 行人司의 行人이었던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백이전》을 서술하여 황제에게 바친다.⁶¹⁾ 이 책은 크게 이사충 본과 전고훈 본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현재 볼

59)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中國 正史 外國傳·宋史》 1, 2011, 325-326쪽 참고.

60) 《백이전》에서의 '백이'는 小百夷와 大百夷 모두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대백이만을 특정해서 지칭하기도 한다. '백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운남 변경의 타이족을 의미한다는 설이 일반적이지만 《백이전》에서는 특히 麓川平緬宣慰司의 세력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의 '대백이' 역시 종종 麓川, 즉 猛卯(타이족의 갈래인 Tai Yai가 주로 거주하던 지역)의 공간과 그곳 사람들을 의미한다.

61) "洪武二十九年二月己丑朝, 緬國復遣使來訴百夷以兵侵其境土. 庚寅, 遣行人李思聰錢古訓使緬國及百夷... 思聰等還, 具奏其事, 且著百夷傳, 記其山川, 人物, 風俗, 道路之詳以進." 《太

수 있는 《백이전》은 대부분 전고훈 본 계통이다.⁶²⁾ 《백이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에는 百夷, 즉 운남 변경의 타이족 小國 혹은 종족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묘사한 민족지적 서술이 실려 있다. 후반부에는 백이들 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이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황제와 사신들의 훈계가 실려 있다.

저자는 처음으로 대면한 백이의 종족적, 문화적 다양함에 다소 당황한 듯 보인다. “其習俗不一”을 강조하며 저자는 백이들을 大百夷와 小百夷로 나누고 다시 소백이 안에서 많은 하위 그룹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때로는 종족이나 문화, 혹은 지역,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된 대단히 자의적이면서도 혼종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면서 특정 백이 집단 내부에서도 다른 백이 집단의 문화적 흔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는 麓川의 음악에 다른 백이 공동체의 것들이 함께 녹아있음을 간파한다.⁶³⁾ 저자의 이러한 관찰은 실제 현실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산악 지형에서 생존해 온 이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타문화에 대한 유연한 수용 능력을 지녔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능하다고 한다.⁶⁴⁾ 음악이나 악기와 같이

祖洪武實錄》卷244.

62) 《백이전》은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었다. 현재 중국에 소장되어 있는 《백이전》은 대부분 1929년 鎮江 丁氏 소장 명 필사본의 영인본이다. 여기에는 ‘本朝余姚錢古訓’이라 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볼 수 있는 유일한 단행본 《백이전》이다. 그 이전에 《백이전》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책에 인용되거나 轉載되어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지 등에 인용된 《백이전》에는 이사총 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고 인용된 내용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단행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江應樑은 異本 조사를 통해 총 5종의 《백이전》 필사본이 있다고 했는데 이사총과 전고훈이 각각 집필했고 황제 진상본과 이를 수정한 또 다른 이본 등을 만들다 보니 5종의 이본이 유통된 것이라 짐작하였다.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 《百夷傳校注》 <序言> 참고.

63) 錢古訓撰/江應樑 校注, 앞의 책 75-77쪽 참고.

64) 특정 국가나 정치체에 귀속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의 광범위한 산악지역 - 중국 서남부와 미얀마 북부, 인도 동북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베트남 북서부, 캄보디아 북동부 산악 지대 - 에 대해 연구한 스콧은 이곳은 극단적인 언어, 종족, 문화적 다양성과 고립성을 보이지만 그 반면 놀랄 만큼 빠르게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하는 등 변화와 적응 능력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百夷’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임스 C. 스콧 지음 /이상국 옮김,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서울: 삼천리, 2015, 52-66쪽 참고.

비교적 고급문화의 영역에서 백이 집단의 혼종성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저자는 주로 이들의 외모나 머리 모양, 복식과 음식 등 사람의 외양과 물리적 형태, 생활 양식 등을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외모와 의식주, 관혼상제를 비롯한 풍속, 때로는 정치 형태와 사회 조직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正史를 비롯한 중국 문헌의 이역 재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 글쓰기 방식이다. 《백이전》에서의 百夷 집단의 분류에서도 먼저 이들을 외양이나 물리적 차이(피부 색깔, 복장이나 문신 등)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車里도 小百夷라고 한다. 이마에 문신하고 黑齒를 하고 머리를 자른 모양이 마치 백 머리 같다.

哈刺 사람들은 머리가 칠혹 같다. 남자는 무늬 있는 천으로 겹옷을 만드는데 百夷들을 모방해서 만든 것들도 있다. 여자들은 머리를 뒤로 틀어 올린다. 목에는 여러 색깔의 구슬을 달았다...

古刺 사람들은 (피부) 색이 대단히 검다. 남자들의 옷 장식이 哈刺과 비슷하거나 혹은 흰 천으로 겹옷을 만들기도 한다. 여자들은 羅羅족 모양과 비슷하다.

漂人 사람들의 옷은 모두 백이와 비슷하다. 여자들은 흰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윗옷은 배가 드러나는데 붉은 등나무로 그곳을 칭칭 감았다. 사라(娑羅) 나무로 된 천으로 치마를 만들어 양쪽에서 연결한다.⁶⁵⁾

저자들은 백이의 시각적 이미지 가운데 특히 색채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은 이빨’, ‘칠혹 같은 머리카락’, ‘검은 피부’, ‘흰 옷’, ‘붉은 등나무’ 등 육체적 외양에서의 색상 이미지로 이들을 구분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

65) “車里亦謂小百夷，其俗刺額，黑齒，剪髮，狀如頭陀。哈刺，男女黧黑。男子以花布爲套衣，亦有效百夷製者。婦人髻在後，頂繫雜色珠，… 古刺，男女色甚黑。男子衣服裝飾類哈刺，或用白布爲套衣。婦人如羅羅狀。漂人，男女衣服皆類百夷。婦人以白布纏頭，衣露腹，以紅藤纏之。娑羅布爲裙，兩接，上短下長，男女同耕。”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앞의 책 99-102쪽. 참고로 車里는 지금의 西雙版納이다. 古刺은 하부 미얀마에 있는 도시이자 왕조 이름인 페구(Pegu, 현재의 바고)를 의미하는 한자인데 이 책에서의 古刺이 그곳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漂人은 ‘漂人’과 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곧 ‘驃人’을 의미한다고 한다.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앞의 책 102쪽) 표국이 망한 뒤 사라졌다고 알려진 Pyu족일 가능성이 있다. 哈刺은 그 기원이 분명치 않다.

른 '색상'이 외부인이 짧은 관찰을 통해 가장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저자는 대백이와 소백이를 구분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백이와 대백이를 혼용하였다. 또한 百夷와 緬(미얀마), 老撾(라오스), 八百(태국북부)을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뒤섞기도 하였다. 즉 이곳의 사람과 공간을 특정 유형에 배치, 분류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호 구분이 어려운 '백이' 전체를 포괄할만한 정체성을 사람들의 풍속이나 동식물과 같은 事物 등 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포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諸夷들의 언어와 관습은 비록 다르지만 대백이를 군장으로 하므로 각기 모방하기도 한다. 夷人들은 이름이 있지만 諱하지 않는다. 성은 없고 의서나 점복서 등의 책도 없다. 때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달의 참과 이그러짐을 보고 때로 삼는다. 일이 생기면 닭으로 점을 쳐서 결정한다.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을 줄 모르고 생강즙을 코에 넣는다.

...

음식 중에 독특한 것으로는 미꾸라지, 드렁허리, 뱀, 쥐, 잠자리, 쥐며느리, 교룡, 매미, 메뚜기, 개미, 개구리, 땅벌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이것들을 음식으로 만든다. 생선과 고기 등의 즙과 쌀 국을 묵혀서 구더기가 생기면 이것들을 음료로 만든다. 초목과 동물 중에 독특한 것으로는, 풀을 예로 들면 가을에는 줄기 수백 개가 하나로 얽혀 있곤 하는데 이 땅에서 자라는 이러한 풀에 풍토병의 독이 특히 심하다. 나무 중에서도 서너 그루가 연결된 것이 많다. 크기가 머리통만한 굴도 있고 메기 머리에 잉어 몸을 한 물고기도 있으며, 물소 머리에 황소 몸을 한 소가 있고 면양 머리에 산양 몸을 한 양도 있다. 수탉이 알을 많이 품고 있고 알을 낳는 놈도 있다.⁶⁶⁾

저자는 위에서는 외양과 복식의 차이로 이들을 분류했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66) “諸夷言語習俗雖異，然由大百夷爲君長，故各或效其所爲。夷人有名不諱，無姓，無醫卜等書。不知時節，惟望月之盈虧爲候。有事惟鷄卜是決。疾病不知服藥，以姜汁注鼻中。… 其飲食之異者，鰕，鱗，蛇，鼠，蜻蜓，蝸，蛟，蟬，蛙，蟻，蛙，土蜂之類以爲食。魚肉等汁暨米湯信宿而生蛆者以爲飲。其草木禽獸之異，草則秋間數十百株結爲一聚，地產此草，煙瘴尤甚。樹木多有三四株結爲連理。有大如斗之柑，有鮎頭鯉身之魚，水牛頭黃牛身之牛，綿羊頭山羊身之羊，雄鷄多伏卵，亦有生卵者。”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 앞의 책 105-117쪽.

풍속이나 이 땅의 동식물처럼 또 다른 피상적 현상과 사물을 통해 이들을 ‘백이’라는 통합된 하나의 범주 안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식의 자의적 배열과 판단에 의한 이러한 분류 방법은 냉정히 평가하면 결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피상적 관찰로 얻은 백이 관련 지식들이 때로는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때로는 반대로 이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여기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사물이 구별되는 방식에 적용되는 자의성’⁶⁷⁾은 타자를 구분하려는 주체의 시도에 늘 동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이역 사람들의 육체적 특징에 대한 강조는 대개 묘사 대상을 시선의 주체와는 다른 ‘異類’로 규정하고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⁶⁸⁾ 하지만 《백이전》의 변경 공간 재현에서는 이곳과 저들을 비하하거나 폄훼시키려는 의도가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비록 이름만 있고姓은 없으며 책이나 의술도 없고, 正朔도 없는 중원 문화의 ‘결핍’ 상태가 이들의 공통점으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는 비하보다는 ‘지식’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곳은 일찍이 중국의 지식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지의 공간이었다. 물론 주변부 공간에 관한 지식들을 서술, 배치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正史와 기타 지리서 등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四夷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그곳에 존재했던 정치체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이들의 의식주와 풍속, 정치 체계, 중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이역의 지식화’ 방법이었고 전형적인 ‘주변서사’였다.⁶⁹⁾ 때

67) Edward W. Said 저/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3, 98쪽.

68) 대만 원주민들에 대한 청대 문헌에서는 등근 눈, 노출된 신체, 검은 피부 등 육체적 차이가 곧 그들의 문화적 열등함과 야만성의 표지로 기능하는데 이는 종종 인종주의적 담론을 구성한다. (Emma Jinhua Teng, *Taiwan's imagined geography -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04-106쪽) 외국인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주목은 일찍이 《隋書》에서 대만과 종종 혼동되었던 琉球 관련 서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9) ‘주변서사’란 정사를 비롯한 전통 문헌에서 四夷나 外國을 서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변서사’에 의하면 四夷들은 이른바 ‘要服’과 ‘荒服’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東夷, 西戎, 南蠻, 北狄의 순서에 따라 주로 이들의 풍속과 중국과의 교류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러한 전통은 《史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동서남북의 순서와 정형화된 체계를 갖춘 것은唐

문에 《백이전》에서 저자가 획득한 百夷 관련 지식 역시 전통적인 구도를 따라 배치되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南中 지역보다 더 서쪽에 있던 그야말로 ‘새롭고 낯선’ 蠻夷들이었기 때문에 褒貶을 가할만큼 관련 지식이 성숙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백이들의 풍습은 물론 중국의 관점에서 야만적이기는 하지만 저자는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이들을 형용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재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낯설고’, 중원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변경 공간일 뿐이다. 수탉이 알을 낳는다는 믿기 힘든 정보는 ‘낯설’과 ‘차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낯선 이역 공간에 대한 지식은 뒷부분에 나오는 일종의 외교 기록들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백이 지역으로 사행을 나선 저자 일행은 영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麓川(猛卯)과 緬國(미얀마)을 차례로 방문하여 이들의 상호 적대 행위를 일거에 중단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야만인’들을 고분고분하게 한 것은 명 황제의 편지였다.

(황제는) 사윤발에게 이렇게 타이르셨다. “짐의 중국 고대 성인들은 禮와 德을 다루는 데 있어 각기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성인들이 함께 계승해온 것이다. 이를 지키고 행하면 위아래가 모두 편안하며 백성들도 생업에 즐겁게 종사할 수 있다. 왜인가? 제후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대대로 사손들에게 봉록이 주어지며 국운이 면면히 이어지는 것은 (고대에 시행한) 九伐의 功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열국 중 감히 약자를 범하고 함부로 하는 이들은 천자가 병사를 출동시켜 경고할 것이다. 현자를 해치고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 역시 병력으로 칠 것이다. ... 아! 짐은 너희들에게 경계하노니 온전하게 지키면 좋겠지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전부를 움직일 것이다. 만약 모두 손해를 입으면 이는 전부 망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온전하게 지켜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나라는 군사 동원을 그치고 화해하였다.⁷⁰⁾

代 초기의 《晉書》부터라 할 수 있다. 그후 杜佑의 《通典》, 歐陽修의 《新五代史》 등을 거치며 四夷의 구성 체계와 명칭이 정착된다. 錢云은 이렇게 형성된 주변부 四夷들에 관한 서사 구도를 ‘四夷模式’이라 칭한다. 이 ‘사이모식’은 ‘역사’라는 체계 속에서 구도와 레토릭을 통해 ‘세계질서’를 표출한다. 錢云, <從‘四夷’到‘外國’:正史周邊敘事的模式演變>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7年 第1期) 참조.

70) “論思俞發曰, 朕中國先古聖人, 馭頑禮德, 各有條章. 是條章也, 列聖相繼, 守而行之, 上下相安, 黔黎樂業. 何也? 諸侯敬畏, 天祿子孫, 國祚綿長, 乃九伐之功驗也. 列國敢有憑弱犯寡者,

영토를 놓고 다투던 미얀마의 아바 왕국과 麓川(猛卯)는 현 상황을 유지하라는 황제의 엄중한 훈계에 바로 적대 행위를 중단했다고 사신은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백이전》에 묘사된 이러한 시각과 레토릭은 이후의 문헌에 고스란히 계승된다. 萬曆 연간의 《殊域周咨錄》은 이 사건뿐 아니라 그 뒤의 후일담도 자세히 기록하였다.⁷¹⁾ 물론 《백이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명 황제는 분란을 중재하는 평화주의자이자, 어질지만 위엄있는 유가적 군주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거칠고 사나운 변경의 야만인들은 황제의 중재와 당부에 모두 감화되었고 이러한 황제의 개입은 유가적 德治의 전형적 사례로 비친다. 이는 물론 당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했다기보다는 명 제국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대외관계 구상을 독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획된 장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중국의 시야에 들어온 운남 변경 부근의 小國들과 미얀마와 관련된 지식들을 막 개국한 명 제국의 비전과 함께 전통적인 레토릭에 담아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백이’를 다루는 이들의 태도와 자세는 사실상 명대 내내 중국인들이 운남 너머 공간에 대한 상상을 틀 짓는 역할을 하였다. 《백이전》의 몇 가지 서사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대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운남 변경의 종족, 문화, 사회적 공간들은 너무나 多岐한 양상을 전시하고 있기에 도저히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어 ‘百夷’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결국 이 다양한 종족적,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한 갈등은 명 제국이라는 ‘중심’의 감화로 인해 평화롭게 해결되고 이들은 ‘중심’을 향하여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天子發兵以省之。賊賢害民者，亦發兵以伐之。… 噫！以朕戒爾守全則可，不守全而以全動，設若全虧，是爲全亡，莫如守全以圖綿長，不亦美乎？由是二國罷兵和好。” 錢古訓 撰/江應樑 校注， 앞의 책 130-134쪽.

71) 洪武 30년(1397) 반란을 일으킨 刁幹孟에게 쫓겨 사윤발이 京師까지 도망을 오자 이를 가련하게 여긴 황제는 그를 호위하여 고향에 돌려보내고 刁幹孟을 타일러 그에게는 따로 도관 작위를 수여하였다고 하였다. (明) 嚴從簡/余思黎 點校, 《殊域周咨錄》, 北京: 中華書局, 2009, 327-328쪽. 《殊域周咨錄》은 명 만력 연간 완성된 명의 대외관계 관련 문헌으로 모두 24卷이다. 명의 변경 지역 및 외국의 역사적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특히 명대에 집중되어 있어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이 명대 만력 이전의 국제 관계사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아 관련 분야에서는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로 평가받는다.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층위로 보이는 민족지학 부분과 사신들이 전달하는 황제의 훈계 부분은 결국 '명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제시'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물론 《백이전》의 서사는 다소 어설피고 비현실적이다. '백이'라는 새로운 四夷 집단이 '주변 敍事'에 추가되지만 기존의 정사나 지리서에 이들에 관해 축적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계 설정이나 설명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비체계적이다. 그리고 물론 역사적으로 명 황제의 조서가 결코 마법과 같은 평화의 기적을 가져오지도 못했다. 미안마와 麓川, 그리고 車里(지금의 西雙版納), 老撾(지금의 라오스 북부) 등 주변 土司들은 끊임없이 영토 쟁탈전을 벌였다. 《수역주자록》은 황제의 중재와 위엄 어린 훈계를 들은 이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해산하였고(皆挽首解去)"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사죄하였다(悔懼 ... 入貢方物謝罪)"⁷²⁾라고 기록했으나 이는 단지 독자를 위한 '제국의 레토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각은 《백이전》과 대단히 비슷하다. 1440년대에 雲南 內地를 호시탐탐 엿보던 '麓川王國'과 세 번에 걸쳐 치렀던 전쟁은 명의 외교전에서의 실패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백이전》 류의 기록들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기보다 현실의 사건들을 모티프로 하고 이들이 상상하는 조화로운 중화제국의 이상향을 그린 허구 서사에 더 가깝다.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백이전》은 보다 서쪽으로 확장된 변경과 새롭게 개척한 四夷의 공간을 조화롭게 전시하는 신생 제국의 이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치열하게 영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타이족 연맹들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여 이들을 중심을 향해 복종하는 '주변'으로 만들어 중국 중심 천하질서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기획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고양했을 법하다. 전통 중국, 특히 명 제국에서 외국과 관련된 의례나 관련 문헌의 실질적 효과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질의식과 만족감을 얻어내는 것에 있기 때

72) (明) 嚴從簡/余思黎 點校, 앞의 책 329쪽, 331쪽.

문이다.⁷³⁾

물론 이렇게 자신만만한 ‘天朝’의 위엄과 비전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명 중기 이후 조정은 더 이상 八關 너머의 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명 중기 이후의 백이 관련 글쓰기에서는 ‘이상적인 제국질서’라는 초기의 상상 구도에서 상당히 멀어졌음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명 제국의 토사이기도 했던 미얀마의 아바 왕국은 1480년대 Mong Yang Shan(孟養)이라 불리는 산족들의 침략에 시달린 끝에 사실상 꺾멸되었다. 버마족은 남쪽으로 내려가 1510년대 땡구라는 지역에 땡구 왕조를 건립하였다. 땡구는 북쪽의 산족과 남쪽의 몽족을 제압하고 상하부 미얀마를 장악한다. 이후 땡구 왕조는 운남의 변경에 설치되어 있던 木邦(미얀마 산주 동북부), 車里(西雙版納), 八百(태국 치앙마이) 등 명의 토사 구역과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침략한다. 16세기 후반 땡구 왕국이 운남의 永昌, 騰冲, 大理 등을 노리자 明도 어쩔 수 없이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 명과 미얀마의 군사 충돌 와중에 주변 토사들, 즉 타이족 小國들은 때로는 미얀마에 때로는 명에 귀의하며 생존을 도모한다.⁷⁴⁾ 만력 연간 벌어지는 운남 변경의 전쟁에 참여한 朱孟震은 《西南夷風土記》라는 필기에 이 공간과 공간 속의 사물들을 묘사한다.⁷⁵⁾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백이전》 이후 변경 인식과 상상이 어떻

73) Yuming He는 “이러한 의례와 이들의 여러 층으로 짜여진 재현들이 가져다주는 실제 효과와 의미는 국내의 독자들에게 의례의 비전과 정치적 의미와 집단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이라고 표현한다. (*Home and the World - Editing the “Glorious Ming” in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189-190쪽)

74) 《明史》 <列傳> ‘雲南土司’ 三, 張廷玉等撰, 《明史》, 8132-8136쪽 참고.

75) 字는 秉器이고 新淦人이다. 생몰 연도는 미상인데 隆慶2년(1568년)에 진사가 되었고 관직이 副都御史에 이르렀다. 만력 연간에 주로 활동하였다. 《서남이풍토기》는 卷은 나누어지지 않았고 단락 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지리와 문화, 種族뿐 아니라 이들의 역사와 전쟁의 배경 등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 《서남이풍토기》는 주맹진의 《游宦餘談》에 실려 있고 游朴의 《諸夷考》 卷三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方國瑜는 《雲南史料目錄概說》에서 주장하기를, 이 책은 당시 四川에 근무 중이던 주맹진이 운남에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여준 《서남이풍토기》를 보고 베껴서 《游宦餘談》에 부가하고 저자 이름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諸夷考》 卷三에는 만력 연간 미얀마군이 공격을 해 왔을 때 주맹진이 이것을 직접 기록했다고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진짜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西南夷’는 주로 현재 운남과 운남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아 각국(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변경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백이’가 원대 이후 사용된 것에 비교해 ‘서남이’라는 표현은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사용 범위도 훨씬 넓었다.⁷⁶⁾ 이 책에서도 ‘백이’라는 어휘가 사용되지만 ‘서남이’ 중 ‘車里’, ‘八百’, ‘老撾’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남이의 자연 환경과 지리,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지리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서남이의 種族을 분류, 기록한 이른바 민족지학적 서술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萬曆 11년(1584) 벌어진 명나라와 미얀마 쩡구 왕국 간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주맹진은 《대리행기》나 《백이전》과는 달리 이곳만이 지닌 독특한 기후와 지리적 환경이 본질적으로 이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곳의 天도가 중원보다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였다.⁷⁷⁾ 때문에 그의 눈에 비친 이곳의 지리 경관과 동식물, 혹은 사람까지도 중원과 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남이’를 중원과 는 전혀 다르고,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이곳의) 산은 위태로운 낭떠러지와 날카로운 절벽이고 강에는 검은 물이 약하게 흐른다. 절벽 너머로 멀리 바라보면 분칠한 벽과 띠 집이 있고 수레와 말이 태연히 왕래하고 있으나 세상은 그곳과 통할 수 없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다.⁷⁸⁾

76) ‘서남이’라는 용어는 한무제 시기 邊郡 개척 과정에서 등장한다. 처음에는 중원의 서남쪽, 혹은 巴蜀의 서남쪽에 존재한 만이 집단을 총칭한 명칭이었지만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永昌郡 徼外에서 內屬한 만이 혹은 조공 사절 등으로 ‘서남이’의 범주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정면, <후한대 남이 지역의 변군 지배와 ‘남중’ ‘남이’ 개념의 출현>, 《중국사연구》 제49집, 2007.8) 또한 이후 正史에 등장한 ‘서남이’의 범주에는 해양과 도서 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체가 포괄되기도 한다.

77) “天度，二月春分日，當出卯氏十六度，而出房一度，當入酉昂一度，而入胃十六度，較之中州，似稍過南。”(明)朱孟震, 《西南夷風土記》, 臺北: 廣文書局, 1969, 1쪽.

78) “但山則懸崖峭壁，河則黑水弱流。遙見隔崖，粉墻廬舍，儼然車馬往來，而世莫能通焉，亦不知

‘서남이’ 내부에서는 집과 수레, 말이 있는 그러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위태로운 낭떠러지와 검은 하천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깥세상과는 격절된 미지의 땅이다. 그에게 이곳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 통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不可知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는 이곳이 “한무제 때부터 통하던 곳이었고” 위진남북조와 당나라 때에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복속하기도 했고 송대에는 金沙江을 경계로 결별했다가 원대에 다시 복속시켰고 명대에 이들 주장에게 토사 직위를 내렸다는 그 동안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⁷⁹⁾ 하지만 저자는 《대리행기》처럼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풍경 속에서 과거 중국 문명의 흔적을 찾거나 《백이전》처럼 이곳이 제국의 일부임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이곳을 “들어갈 수도,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곳이 중원의 자연이나 사람, 동식물과 얼마나 다른지를 다소 과장을 섞어서 설명하고 재현한다. 그가 이 땅에 호기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음은 곳곳에서 표현되어 있다.

산과 계곡에는 뱀, 공작이 많고 그 물에는 독이 많다. 蒲窩 밖에는 독이 있는 샘이 있다. 동물들이 마시면 모두 죽는다. 그 샘 옆에 쌓여 있는 털과 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초목이 무성한데 아마 주민이 적어 벌목도 되지 않고 소와 양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산에는 거대한 목재가 많은데 모두 수백 척까지 자란다. 나무는 너비가 4-5아름에 이른다. (그 중) 아는 나무는 삼나무, 녹나무, 저나무, 상수리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등 몇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살펴보아도 내 평생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미얀마에 속하는 땅으로 孟浩라는 곳이 있는데 나뭇잎이 마치 수레 덮개 같다. 그곳의 백성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와를 대신해서 지붕을 덮는다. 茶山과 光腦에서는 물고기가 난다. 오래된 대나무 가지는 그 길이가 1 丈 남짓하다. 蠻莫山の 나무 중에는 서로 연결된 것이 많다. 潞江 밖(의 지역)에서는 길가의 풀들이 서로 엉켜 있는데 이를 揪頭라고 부른다. 풍토병은 이렇게 발발하는 것이다.⁸⁰⁾

爲何地也.” 朱孟震 앞의 책 7쪽.

79) <序>, 朱孟震, 《西南夷風土記》, 臺北: 廣文書局, 1979.

80) “山澗多蝮蛇孔雀, 其水多毒. 蒲窩之外有毒泉, 鳥獸飲之, 無不卽死. 毛骨積泉傍者, 不知其幾許也.”

그에게 있어 '서남이'는 하늘을 가릴 만한 큰 잎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만큼 무성한 덩굴로 뒤덮여 있고 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동식물이 넘쳐나는 풍요의 땅이다. 그런데 그 왕성한 생명력의 나무와 풀들은 서로 얽힌 채 자라지만 그 안에서 무서운 독과 병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생산력의 땅이자 죽음의 땅이다. 그는 광송년처럼 이 땅을 역사적 계보로 재구성하거나 화려한 수사로 심미화하지 않았고 《백이전》과 같이 황제를 향해 사방에서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제국의 상상'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200년 전 거칠 것 없이 당당했던 天朝國의 사신들이 지나가던 그 열대의 공간 속에 들어온 그는 이제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름조차 모르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서남이'는 한대부터 중국의 역사에 들어왔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서남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풍경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독이 들어있는 하천, 이를 마시고 죽은 동물들의 사체, 무려 4-50 아름에 달한다는 이름도 모를 나무들, 지붕을 덮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나뭇잎들, 그리고 이리저리 열기설기 얽힌 줄기들 사이에 숨어 있는 瘴氣 ... 그는 서남이의 자연을 폄하하지도 반대로 찬상하지도 않았다. 그는 열대의 엄청난 생산력에 압도되는 듯 보이지만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치명적인 독기에 대한 보고 - 물론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거나 왜곡인 듯 보이지만 - 는 그 생산력을 결코 중원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뻑뻑하게 하늘을 뒤덮는 울창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나 결코 사람이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 지리에 대한 묘사는 주변의 야만인들을 '向化'시켜야겠다는 중국 지식인들의 혼한 다짐이나 포부조차 꺾이게 하는, '관통할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이곳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⁸¹⁾

이 땅의 자연물 중 동물 역시 중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草木暢茂，蓋居民稀少，斧斤不加，牛羊鮮牧故耳。山多巨材，皆長至數百尺，木至四五十圍者，所可識者，杉，楠，櫟，櫟，榆，楓，數木而已，餘皆入眼，平生未曾見者也。緬甸所屬，地名孟浩，有樹葉如車蓋，彼土民取之，代瓦蓋屋。茶山光腦產魚，古竹節長丈餘，蠻莫山中木多連理。潞江以外，道傍草，皆自相糾結，謂之揪頭，瘴發則如此也。”朱孟震， 앞의 책 7쪽, 8쪽.

81) 이러한 자연풍광 묘사는 Emma Teng이 일찍이 묘사했던 臺灣의 '관통할 수 없는' 황무지의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Emma Jinhua Teng, 앞의 책 83-85쪽.

식물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서남아의 사람들은 동물과의 親緣性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미안마의 어떤 새는 다리가 네 개이고 날개의 살이 마치 거위처럼 많다. 울음 소리는 학 같다. 날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 새끼를 배에서 낳는데 날 때는 새끼를 등에 지고 날아다닌다. 작물을 짓밟지 않고 살아 있는 벌레를 먹지 않는다. 그 새를 죽이면 반드시 불길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천 마리 백 마리 무리를 지어 다녀도 사람들이 감히 해치지 못한다.

물고기 중 (중국과) 같은 것은 잉어와 붕어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식별을 할 수 없다. 大盈江, 金沙江에 그 물고기가 대단히 많다. 사람을 보면 복종하니 그물이나 낚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손으로 잡을 수 있다. 큰 것은 (무게가) 수십 근, 수백 근 나간다. 하지만 맛은 없어서 武昌 물고기 맛에 미치지 못한다.

라오스의 승려들이 錫水가에 머물면 그 물에 사는 크기가 1 척은 되는 흰 거북이 승려들이 경을 읽을 때마다 나와서 듣는다. 승려들이 출타하게 되면 물과 육지에서 (승려들을) 태우고 왕복한다. 지금까지도 있다.⁸²⁾

《서남아풍토기》에는 동물과 관련된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동물들 역시 위에 예시한 식물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생산능력과 거대한 부피를 지니고 있지만 전달하는 의미는 다르다. 이곳의 동물들은 식물과는 달리 병독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 交通하고 공존하는 존재이다. 중국 內地의 것과 우열을 비교하면 뛰어나지는 않으나 어쨌든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글의 맥락으로 보면 이는 이곳 동물이 인간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동물들도 스님들의 독경을 듣고 물고기들도 사람에게 순종하여 기꺼이 희생물이 된다. 사람들 역시 靈物을 함

82) “緬甸有鳥鳥，四足，肉翅大如鵝，其鳴似鶴，能飛而不能遠，其雛胎生，飛行則負雛于背，不踐稼穡，不食生蟲，殺之，必見不祥，故千百爲群，人亦不敢相害也。”

“魚之所同者鯉鯽，餘皆不可識。大盈金沙之內，其魚甚多，見人馴擾，不必網釣，舉手可得，大者數十百斤，但味薄，不若武昌魚之旨且嘉也。”

“老撾一番僧，駐錫水涯，水內白龜長闊丈餘，僧每訟經，龜必出聽，僧若出遊，水陸背乘往還，至今尚存。”朱孟震，앞의 책，10-11쪽，12쪽，13쪽.

부로 해치지 않고 그것의 靈性을 존중한다. 즉 이곳 사람들이 특히 뛰어난 동물과의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 밀착하고 꾸밈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면 인간의 문명보다는 자연이 부여한 본능에 더 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동물과 토착민을 연계하거나 동일시하는 현상은 미안마나 라오스뿐 아니라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을 다룬 이 시기 다른 筆記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⁸³⁾ 아마 중원의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남방의 토착민들은 - 중원에 비해 - 상대적으로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이며 동물과 더 민감하게 交通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지의 소수민족을 다룬 필기에서와는 달리 《서남이풍토기》의 시선은 악의적이거나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 땅은 비록 찌는 듯 무덥고 풍토병이 기승을 부리는 무서운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영적으로 통하여 짐승들이 사람을 따르고 스님들의 독경을 듣기도 하는 신비하면서 허구적인 신성 공간으로 의미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공포스럽지만 신성한 '이역'으로서의 서남이는 뒤이은 민족지학과 정치적 국면에 대한 서술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상당히 변화한다. 이곳의 찌는듯한 더위와 무서운 풍토병,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열대의 나뭇잎과 울창한 樹林, 서로 얽혀서 자라는 덩굴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신기한 물고기까지, 이 모든 것은 '서남이'라는 공간 안에 놓여 있는 恒數的 풍경이자 정지된 대상에 대한 묘사이다.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도 변화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간을 배경으로 한 화석화된 前景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뒤의 민족지학 부분에서부터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는 시간적 차원의 서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서남이의 '種類'를 15종으로 나눈다. 그중에는 '赤髮野人'처럼 "거의 짐승과 차이 없는(蓋與禽獸幾希)" 종류도 있었지만 이미 중국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83) 최수경, <明代 지식인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蠻夷담론: 《君子堂日詢手鏡》과 《炎徼紀聞》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62집, 2015년 12월 참고.

중국화된 종류에 대한 관찰도 보인다. 이들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 그에 따른 변화가 포착되었던 것이다.

蒲人, 樊人, 阿昌 사람들도 그 나라의 영역 안에 있다. 중국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점점 중국처럼 변했고 그중에는 공부를 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이들도 있고 납속하여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⁸⁴⁾

마치 정지된 풍경화와 같던 서남이의 경관 속에 변화한, 혹은 변화중인 事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론 다른 전근대 시기 중국 민족지학적 서술과 마찬가지로 이 변화는 오로지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만 관찰되고 이들의 시간은 중국과 접촉했을 때만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절대 낮설지 않다. 중국과의 연계와 접촉을 재현하는 역사 서사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선형적 서술이, 지역만을 재현할 때는 시간성이 탈각된 博物的, 非선형적 서술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은 특히 이 시기 '邊境敘事'의 글쓰기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⁸⁵⁾ 이 책에서도 시간적 차원의 서술과 공간적 차원의 서술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저자는 땡구 왕국과 명나라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구체적인 역사 시간 속으로 진입한다. 그는 땡구 왕국의 왕이 미얀마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도살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⁸⁶⁾ 물론 이러한 미얀마의 역사 서사는 명의 강

84) “蒲人, 樊人, 阿昌, 乃在邦域之中. 雜華而居, 漸變于夏, 間有讀書登芹泮, 納粟爲吏承者矣.” 朱孟震 앞의 책, 17쪽.

85) 최수경, <명 제국의 邊境 기록에 재현된 시간과 타자 - 《廣志釋》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47집, 2016년 10월) 참고.

86) 朱孟震의 설명에 의하면 땡구 왕국의 왕 莽應理는 매우 잔인했다고 한다. 특히 江頭城(현 미얀마 빠모Bhamo 부근으로 추정) 밖 大明街에 복건, 광둥, 강소, 사천 등지에서 온 상인과 여행객들 수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명과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이 중국 측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모두 화형했다고 한다.(朱孟震 앞의 책 19-20쪽)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주맹진이 미얀마 왕의 계보와 이름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땡구 왕국의 계보는 따빈시웨띠(莽瑞體, 재위 1531~1551)에서 그의 이복형 바인나웅(莽應龍, Bayin Naung, 재위 1550~1581), 바인나웅의 아들 난다바인(莽應理, Nanda Bayin, 재위 1581~1599)으로 이어지는데 주맹진이 참여한 명-미얀마 전투가 1584년 무렵의 일이었으므로 상기의 사건들이 莽應理, 즉 난다바인의 치세에 벌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주맹진은 포악한 통치로 인해 莽應理가 암살되었다고 했으나, 암살된 것은 따빈시웨띠(莽瑞體)였고 난

역을 위협했던 뚱구 왕국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차원의 서사는 곧이어 또 멈추게 된다. 저자는 서남아의 유명한 경관과 풍속, 생활방식 등을 설명한 뒤 超자연적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허구 서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지워지고 공간적 차원의 서사가 전개된다.

邪術: 三宣⁸⁷⁾에는 卜思鬼라는 것이 있는데 여자들이 이 (기술)를 익힌다. 밤에 고양이나 개로 변해서 몰래 인가로 들어간다. 병이 있는 이를 만나면 손과 발을 핥거나 입과 코의 냄새를 맡아서 그 살을 파먹고 물에 뱉으면 물새우로 변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 판다.⁸⁸⁾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운남 서남 변경의 타이족 거주 지역에는 초현실적인 힘을 지닌 귀신 이야기가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 이야기의 버전은 조금씩 변형되곤 하지만 (1) 사람에서 異物로의 변형 (2)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여성, 이 두 가지 서사로 요약할 수 있다. 때로 이 두 가지가 복합되기도 한다. 만력 연간에 나온 다른 필기, 예를 들어 王士性(1547~1598)의 《廣志釋》(1597)이나 沈德符(1578~1642)의 《敝帚軒剩語》 등에서도 이 지역 사람들이 동물로 변신한다든가 여성들이 밤에 나가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죽인다는 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⁸⁹⁾ 남쪽 지방 여성이 생활에서나 性的인 면에서나 남성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邪氣, 妖術 등 초현실적 힘

다바인(莽應理)는 1599년까지 재위하였다.

87) 여기서의 '三宣'이란 세 곳의 宣撫司를 의미한다. 南甸선무사, 干崖선무사, 隴川선무사가 그것인데 대략 지금의 盈江 유역과 瑞麗 일대에 해당한다.

88) "邪術, 三宣有曰卜思鬼, 婦人習之. 夜化爲猫犬, 竄入人家, 遇有病者, 或舐其手足, 或嗅其口鼻, 則攝其肉, 唾于水中, 化爲水蝦, 取而食之." 朱孟震 앞의 책 25-26쪽.

89) 위에 나오는 '卜思鬼'는 '卜食鬼' 혹은 '撥廝鬼'와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沈德符의 《敝帚軒剩語》에 扑廝鬼와 卜食鬼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성별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百夷들은 집에 撥廝鬼를 하나씩 키우는데 형태가 없고 사람의 혼을 잘 빨아들여 여기에 걸리면 하룻밤 만에 죽는다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로 젓갈을 담근다고 하였다. 《광지역》에는 南甸 선무사의 여성들은 모두 짐승으로 변신을 하여 사람의 혼백을 빨아먹는다고 하였다. 車里(西雙版納 일대)나 老撾(라오스 북부)에서는 요술로 사람의 장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을 지니고 있다는 식의 클리셰(Cliché)는 명청대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물론 변신 고사가 중국 서사 전통에서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괴 서사와 달리 百夷/西南夷 지역 변신 고사의 異物들은 파멸적인 결과 - 살인 -를 낳을 뿐 아니라 이들은 원래 타고난 異物이 아니라 사람이 '邪術'을 습득하여 타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것들과 다르다. 때문에 기존의 지괴 고사와 달리 도덕적 타락이나 사악함과 더 쉽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운남뿐 아니라 중국의 서남부 지역 공간 속에 죽음을 가져오는 공포스러운 기운이나 독성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식의 논리는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蠱毒'이나 '斷腸草',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였던 '瘴氣'의 존재는 서남 지역(운남, 귀주, 광서 등)과 그곳의 토착민들을 이질적인 대상으로 의미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⁹⁰⁾ 하지만 百夷/西南夷 지역의 경우 內地의 소수민족 지역과는 그 양상이 다소 다르다. 이 곳을 배경으로 서술되는 초현실적인 변신 고사는 그곳 사람들의 "온 몸이 칠한 듯 시커먼(上下如漆)" 낯선 외모에 대한 재현과 더불어 이곳을 중원으로부터 완전히 격절되어 있는 이역 공간으로 의미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다. 위진남북조 시기 시작된 '志怪'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중시, 박물학에 관한 관심 등을 초현실 세계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한 것이지만⁹¹⁾ 기본적으로 지괴형 고사에 나오는 초현실 공간과 등장 인물들은 인간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지괴 고사는 저승이나 仙境을 배경으로 하거나 혹은 여우와 같은 異物이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등, 초현실 세계와 사람들이 사는 일상 세계가 조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상기의 異物들은 실명의 공간에 특정하여 등장하며, 異物이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사람'이 요술을 부리는 것으로 설정된다. 물론 이러한 변신 고사의 등장에는 明代 유행한 神怪小說에서 비롯된 상

90) 운남의 자연환경이 지닌 독성과 그 공포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최수경, <명 제국의 邊境 기록에 재현된 시간과 타자 - 《廣志釋》을 중심으로> 참고. 廣西 지역에 대해서는 Leo K. Shin, *The Making of the Chinese State*, Cambridge Univ. press, 2006, 2. "Nature of the borderland" 참고.

91) 지괴의 형성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는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21-163쪽 참고.

상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실제 존재했던 특정 지역의 집단 전체를 異物이나 妖物로 지시한 사례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역과 연계된 이러한 변신 고사는 百夷 지역을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생물학적이거나 인종적으로, 즉 본질적으로 다른 층위의 공간임을 제시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百夷들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일종의 異類이며 百夷 지역 역시 '이곳'이 아닌 '저 세상'에 속한 공간이라는 암시이다. 물론 여타 서남 지역 - 貴州, 廣西 등 - 이나 그곳의 소수민족을 재현한 글쓰기에서도 그곳의 자연과 인간들이 얼마나 이질적이고 야만적인지, 중원과는 문화적, 생태학적으로 얼마나 동떨어진 공간인지를 역설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도 그곳은 기껏해야 '荒服'이었고 '야만'이었을 뿐 결국 이 천하 구도 안에 속해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사를 통해 보면 百夷들과 그들의 지역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변신 고사들은 당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廣志 釋》은 "(南甯의) 주변 군의 백성들 가운데 장사나 공무로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은 밤이 되어도 감히 잠을 못 자고 군중들이 서로 경계시키고 혹시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무리를 이루어 쫓아내는"⁹²⁾ 지경이라고 하였다. 특정 공간에 대한 비현실적 공포가 현실과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역사성과 시간성을 無化시킨 공간적 차원의 서사를 통해 생산된다. 이 공간적 차원의 서사는 때로는 '사람과 짐승이 영적으로 交通하는' 신성하고 선한 공간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사람을 해칠 목적의 '邪術'이 판을 치는 공포의 땅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서남이풍토기》는 《백이전》과 달리 이곳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이역'으로 묘사했지만 둘 사이의 공통 점도 있다. 《서남이풍토기》 역시 이 땅을 중원과 연계시킬 때에만 역사성을

92) "鄰郡民有經商或公事過其境者, 晚不敢睡, 群相警戒, 或覺物至則群逐之" 《廣志釋》 <卷之五>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차원의 서사에서는 예외 없이 그 곳을 신비화, 이질화하거나 공포, 사악함의 의미를 부여한다. 당시 중국인에게 百夷/西南夷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당초 明의 일부로 천명되었던 百夷/西南夷는 어느새 멀고 낯선, 다른 층위의 공간으로 의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명 제국이 종말을 향해 가던 17세기 초반, 章潢(1527~1608)은 《圖書編》(1613)에 그가 포착한 전 세계의 지도와 관련 지식을 모두 배치하였다. 그가 배치한 지식들은 명 제국 초기에 설정한 중국 중심의 세계 구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는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를 포함한 모든 백이 지역을 균질화하여 지도 속에 포함하고 內地의 지역들과 동일한 형태로 나열한다. 상황은 이 부분에 丘濬(1421~1495)의 《大學演義補》를 인용한다. 雲南이 한때 외국이었음은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이곳은 漢代부터 이미 제국의 일부였으며 명 제국의 판도가 미얀마 끝의 南海에까지 이른다는 명대 초기의 제국 구상과 변경 인식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되풀이된다.

운남은 한대에 이미 중국에 편입되어 西南夷라 불렸다. 唐代 말기에는 南詔가 이곳을 차지했는데 그 후 蒙氏와 段氏가 (정권을) 가져 스스로를 하나의 나라라고 여겼다. 송대에는 결국 이곳을 소유할 수 없었다. 元 世祖는 大理國을 평정하면서 그 땅을 內屬시켰다. 명조는 번부를 세웠고 黔國공이 대대로 이곳을 지켰다. 지금 雲南, 楚雄, 臨安, 大理 등에는 內地와 마찬가지로 府가 설치되었고 元江, 永昌 밖 麓川, 車里 등은 西南夷로 삼아 한나라 때처럼 (사천의) 成都에서부터 (운남의) 滇池 (지역)로 간주하였다. 대개 운남의 땅은 남쪽으로는 元江이 관문이 되고 車里가 울타리가 되고 八百에까지 미친다. 서쪽으로는 永昌을 관문으로 하고 麓川을 울타리로 하고 木邦에까지 미친다. 서남쪽으로는 緬甸을 통해

南海에 이른다. 동남쪽으로는 寧遠에 통하여 安南에서 끝난다.⁹³⁾

위의 인용문에서는 관문(關)과 울타리(蔽)라는 표현으로 통치 형태와 영향력의 차이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당시 토사가 설치되어 있던 영역 모두를 - 실제 통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 운남의 땅으로 나열하고 있다. 물론 원래 이 글을 썼던 丘濬은 결코 서남이가 중국에게 중요한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곳 모두를 제국의 판도로 간주하는 명대 초기의 인식은 명 말기의 저작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어 있었던 것이다. 《圖書編》 卷42에 수록된 운남 행정구역 지도에서 장황은 老撾를 운남 강역 밖에 놓기는 했지만 緬甸, 木邦, 孟養, 八百 등은 여전히 운남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태국의 아유타이 왕국과 주변 타이족 小國들을 모두 정복했던 동남아의 강대국 미얀마(당시 퉁구 왕국)는 여전히 그의 지도 속에서 일개 토사로 운남 끝의 작은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을 어떻게 왜곡 혹은 포장했든 간에 이 지도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당시 어떤 주변 세력이 넓은 영토와 권력을 쥐고 발호하고 있다고 해도 明은 大海를 경계로 삼는 이 천하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그리고 실제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제국의 체제 안에서 모든 공간은 明이 부여한 이름 아래 균일하게 배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 왜곡이 상당히 심한 이 지도는 실제 통치나 통상, 전쟁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명이 구상하는 제국 상상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나 우열과는 별도로 중국이 고안한 표준화된 체제 속으로 대상을 포섭하여 이를 체계화, 이미지화하는 이러한 작업은 명대 후기의 제국 구상에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 상상의 '체계화'는 물론 《圖書編》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다. 통속적 지식백과라 할 수

93) “按雲南地漢時已入中國，謂爲西南夷。唐末爲南詔，所據後爲蒙段二氏所有，自爲一國。宋竟不能有之。元世祖始平大理以其地內屬。本朝立爲藩府，命黔國公世守之。今其雲南楚雄臨安大理等府設置如內地，而更以元江永昌之外麓川車里等處爲西南夷，亦猶漢時自成都而視滇池也。大抵雲南之地，其南以元江爲關，以車里爲蔽，而達于八百，其西以永昌爲關，以麓川爲蔽，而達于木邦，西南通緬甸，底於南海，東南通寧遠，而竟乎安南。西北盡麗江，而通乎吐蕃。”《圖書編》 卷48, 欽定四庫全書本 41쪽. 이 단락은 《大學義疏補》 卷155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1 《圖書編》 卷 42 <雲南圖敍>

있는 당시의 日用類書들 역시 尙황과 비슷한 지리 지식과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明이 막 개국했을 때 야심만만 초대 황제가 주변 타이족 통치자들에게 남발했던 信符와 金牌는 결국 제국의 종언을 앞두고 있던 이 시기까지 유효한 역할을 한 셈이다. 명대 서남 변경에 존재했던 많은 정치체를 土司라는 제도 속에 수렴하고 그들의 땅이 모두 ‘大明’의 판도라고 선포한 것은 물론 제국 특유의 확장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 제국은 단순히 외교적,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욕망을 포섭하고 공식화하려 했고 尙황과 같은 이들은 이를 문헌 속에서 재생산하고 유포하였다.

尙황이 계승했던 제국 상상은 불과 반세기 뒤에 허무하게 종언을 고하게 된

다. 중원을 빼앗긴 南明의 황제 朱由榔(1623~1662)은 吳三桂에게 쫓겨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얀마로 피신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그 선택은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었다.⁹⁴⁾ 王虜武는 주유량이 廣西와 湖南에서 오랫동안 체류했음에도 미얀마에 대해 왜 이렇게 무지했었는지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중국이 대외관계를 통제하며 불변하는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 당시의 明朝를 오도시켰음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⁹⁵⁾ 明의 황족에게 여전히 미얀마가 자신들의 충실한 신하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 그 체제란 아마도 허울만 남은 ‘百夷’의 토사 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불과 반세기 전 《도서편》이 그런 것과 같은 제국 강역과 위용이 문헌 속에서 거둬 유포되고 전파되면서 이러한 皇明帝國의 상상이 현실과 錯綜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雲南은 천년 만에 중국의 판도로 다시 진입했고 元明 제국은 운남 너머의 땅을 천하 구도 속에 포섭하려고 시도하였다. 《西南夷風土記》가 보여주었듯이 명대 후기 이 곳은 이미 낯선 열대의 ‘異域’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雲南土司’로서의 백이와 서남이들은 문헌 속의 ‘상상의 제국’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력제 주유량의 비극 역시 바로 이러한 이중적 재현과 상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唐)樊綽 撰 / 向達 校注, 《蠻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1962.
 (元)郭松年·李京撰 / 王叔武 校注, 《大理行記校注·雲南志略輯校》,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86.
 (明)錢古訓 撰 / 江應樑 校注, 《百夷傳校注》,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80.

94) 永歷帝라고 불리우는 주유량은 1646년 대신들에 의해 남명의 황제에 옹립되었고 운남 등지에서 李定國, 孫可望 등과 함께 反淸 활동을 전개한다. 1661년 청군이 운남으로 진격하자 그는 미얀마의 만달레이로 도망간다. 오삼계가 미얀마를 공격하자 미얀마 측은 주유량을 오삼계에게 넘겨주었고 1662년 주유량은 昆明에서 오삼계에 의해 살해되었다.

95) [英]崔瑞德 [美]牟復禮 編, 앞의 책 306쪽.

- (明)嚴從簡 / 余思黎 點校, 《殊域周咨錄》, 北京: 中華書局, 2009.
- (明)朱孟震, 《西南夷風土記》, 臺北: 廣文書局, 1969.
- (明)章潢, 《圖書編》, 欽定四庫全書本.
- (清)張廷玉 等, 《明史》, 北京: 中華書局.
- 동북아역사재단 편, 《(역주)중국 정사 외국전·新唐書》역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동북아역사재단 편, 《(역주)중국 정사 외국전·宋史》,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Edward W. Said 저 /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3.
- 김성원, 《미얀마왕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한규, 《天下國家: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
- 티모시 브룩 지음 / 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끈경에 빠진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 메리 루이스 프랫 / 김남혁 옮김,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서울: 현실문화, 2015.
- 제임스 C. 스콧 지음 / 이상국 옮김,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서울: 삼천리, 2015.
- 정면, 《남조국(南詔國)의 세계와 사람들: 8~9세기 동아시아의 서남 변방》, 서울: 선인, 2016.
-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아산: 산인, 2018.
- 方國瑜, 《雲南史料目錄概說》, 北京: 中華書局, 1984.
-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元·明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6.
- 方國瑜著 / 林超民編, 《方國瑜文集》,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1.
- [英]崔瑞德 [美]牟復禮 編 / 楊品泉 等 譯, 《劍橋中國明代史(1368-1644)》下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葛兆光, 《歷代中國的內與外》,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17.
- 王柯, 《中國,從天下到民族國家》, 臺北: 政大出版社, 2017.
- 于秀情, 《明朝經營百夷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3.
- 王春橋, 《邊地土司與近代滇西邊界的形成》, 雲南大學 博士論文, 2015.
- Htin Aung, Maung, *A History of Burma*, New York a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Emma Jinhua Teng, *Taiwan's Imagined Geography - Chinese Colonial Travel*

-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C. Patterson Giersch, *Asian Borderlands: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Leo K. Shin, *The Making of the Chinese State*, Cambridge Univ. press, 2006.
- William J. Topich and Keith A. Leitich, *The History of Myanmar*, Greenwood, 2010.
- Yuming He, *Home and the World - Editing the "Glorious Ming" in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박장식, <미얀마-중국 관계의 지속과 변화: 고전기에서 근대 이전까지>,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1999.
- 정면, <後漢代 南夷 지역의 邊郡 지배와 '南中', '南人' 개념의 출현>, 《중국사연구》 제 49집, 2007.8.
- 김선민, <청 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윤영인 외 지음,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배숙희, <蒙元제국의 雲南統治와 諸 종족간의 소통>, 《동양사학연구》 114, 2011.
- 최수경, <明代 지식인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蠻夷담론: 《君子堂日詢手鏡》과 《炎徼紀聞》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62집, 2015.
- 최수경, <명 제국의 邊境 기록에 재현된 시간과 타자 - 《廣志釋》을 중심으로>, 《중국 어문논총》 제47집, 2016.
- 박혜정, <변경에서 중심 읽기>,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제국과 변경》, 서울: 해안, 2017.
- 정면, <雲南의 諸葛亮 - 南蠻 정벌 전설의 西進과 南詔國>, 《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 1호, 2018.
- 尤中, <明朝三征麓川敍論>, 《思想戰線》, 1987年 4期.
- 李劫, <讀郭松年大理行記的另一種收穫>, 《中央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1年 第3期.
- 錢云, <從'四夷'到'外國':正史周邊敍事的模式演變>,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7年 第1期.
- Jon Fernquest, "Crucible of War: Burma and the Ming in the Tai Frontier zone(1382-1454)",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4.2(Autumn 2006).

< Abstract >

Research on Representation Methods for Vicinity of Yunnan
during the Era of Yuan-Ming Empire

Choi, Sookyung

The current paper aims to analyze how southwest frontier of Yunnan, newly developed by China during the era of Yuan-Ming empire, as well as surrounding countries (Myanmar, Thailand, Laos) are represented in the text and to examine its meanings. In the literature during the era of Yuan-Ming, southwest frontier of Yunnan and residents living in that area were named Baiyi (百夷) or Xinanyi (西南夷). In fact, Yunnan grew out of control by China since the 3rd century and it became a part of China when Mongol empire defeated Dali Kingdom in 1253. In the late 13th century, Guo Songnian (郭松年) wrote *Dalixingji* (大理行記) after traveling the major historical sites and scenic spots of Yunnan. Here, he reconstructed Yunnan and its frontier based on the historical lineage developed by the Han civilization. The natural landscape and geographic features of Yunnan were also reproduced with languages and narrative styles which were familiar with traditional Chinese-style writings. During the early period of Ming dynasty, China indirectly ruled southwest frontier of Yunnan and Myanmar and installed Tusi (土司). Envoys who came back after visiting the small kingdoms around Yunnan and Myanmar revealed the ideals of Ming empire via *Baiyizhuan* (百夷傳). It is assumed that China may have confirmed their identity as “we” through these literature and felt sense of homogeneity as well as satisfaction. However, after the middle period of Ming dynasty, China had lost its capabilities to resolve the conflicts happening in the frontier of Yunnan. *Xinanyi fengtuji* (西南夷風土記) by Zhu Mengzhen (朱孟震) from the late 16th century demonstrated the changing recognition and imagination. Zhu Mengzhen reproduced the frontier of Yunnan

and Myanmar as a mysterious and scary place, which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China. However, some literature has continued its “emperial imagination” until the fall of Ming dynasty, by recognizing the southwest frontier of Yunnan and Myanmar as a part of China.

Key words: frontier, Yunnan, Baiyi, Xinanyi, Myanmar, emperial imagin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2.09	2019.02.13	2019.02.14	2019.03.08	2019.03.31

